

■ 2023년 전문자료집 ■

부 모 교 육



남동장애영종습복기관

■ 2023년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 목 차 ☐

1. 기능향상지원1팀	
◦ 23-01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특징과 정서발달을 위한 미술활동	5
◦ 23-02 자아존중감	13
◦ 23-03 손의 기능과 운동방법	21
2. 기능향상지원2팀	
◦ 23-04 보호자를 위한 근골격 질환 예방	35
◦ 23-05 언어재활실 보호자 교육	53
3. 가족문화지원팀	
◦ 23-06 1차 부모교육	71
◦ 23-07 2차 부모교육	81
4. 보호작업장 “열린일터”	
◦ 23-08 2023년 열린일터 사업 및 운영지침 교육	91

보호자 교육 23-01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미술활동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23.08.31. - 2023.09.20.
담당자	장 현 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미술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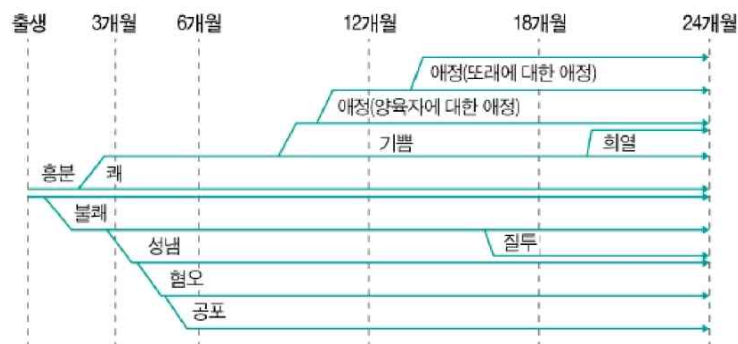
1. 정서발달

1)정서

정서(emotion)는 자극에 대한 복합적인 반응들의 연쇄로서, 인지적 평가, 주관적 변화, 신경세포의 각성, 행동 충동성, 그리고 복합적인 연쇄를 유발시킨 자극에 영향을 주도록 고안된 행동이다. 모든 정서는 자극에 대한 반응을 의미하며 인지, 느낌, 행동의 측면을 포함한다.

2)정서발달

정서발달은 주로 유아기에서 쾌·불쾌 차원의 미분화된 감정 상태에서부터 분노·공포·환희와 같이 더욱 분화된 정서 상태로 발달하고 안정되어가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정서적 안정은 개체의 생리적 기제뿐만이 아니라 환경적 조건에도 의존하고 있다 (교육학용어 사전, 1995). 이처럼 정서발달이란, 인간이 성장하며 주변 모든 것에 대해 가지는 감정의 변화와 그것의 형성과정이다.



< 정서의 분화 >

3)정서표현

정서표현은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정서표현은 인지적 평가와 느낌이 행동으로 표출이며, 정서적 전이를 나타내는 행동과 같이 표정, 언어 행동, 비언어적 행동으로 표현된 내적인 감정을 말한다.

4)정서조절

정서조절은 정서 경험을 주어진 상황에서 사회문화적으로 용인된 방법으로 반응하는 능력으로 정의된다.

2. 발달장애인의 정서·심리적 특성

발달장애인은 영아기 때부터 발달하게 되는 정서(웃음, 울음, 두려움)와 더불어 유아기 때 나타나는 두려움, 성냄, 질투, 기쁨, 애정의 정서를 발달시키고 표현하는데 어려움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정서적으로 미성숙하며, 정서를 다루거나 통제하는데 있어서 부족한 면을 보인다. 대체로 정서가 불안정하고, 집중력과 주의집중시간이 짧다(김윤옥 등, 2005; 김지영, 2006).

1) 지적장애 아동의 사회·정서적 특성

지적장애 아동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해 또래 친구 사귀는 것에도 어려움을 겪는다(이소현, 박은혜, 2011). 사회·인지적 제한으로 일반인과 비교하여 정서를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하여 대화 시 적절한 반응을 보이지 못하거나, 주제 유지가 안 되고, 대화 참여에 소극적인 태도를 띠는 경향이 나타난다. 이는 지적 장애인의 대인관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요소가 된다. 지적 장애 아동은 의존적 경향이나 부정적 자아개념 등 다양한 사회·정서적 문제를 보인다. 이로 인해 생활태도 및 학습태도에 부정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으며, 이런 부정적 심리에 기인하여 소극적 모습과 타인과의 눈 마주침을 하지 않고 숨으려는 도피성향이 강해진다(백창의, 2012).

2) 성인지적장애인의 사회·정서적 특성

성인지적장애인은 다양한 원인에 의한 이질적인 상태로 사회적 판단, 위험평가, 행동과 감정의 자기조절, 대인관계 기술, 직업 환경에서의 동기 등의 어려움과 연관될 수 있다. 자아기능이 저하되어 공격성이나 충동성을 발산하기 쉽고, 자신의 행동 결과에 대한 이해심과 긴장해소 등을 해내지 못한다. 그밖에도 외부의 자극으로부터 민감하게 반응하고, 실패 경험의 누적, 지각의 결함으로 반사회적 행동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러한 행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남으로서 정서불안, 우울 등을 동반하여 다른 사람과의 고립된 행동으로 사회부적응을 일으킨다(최창훈, 2002).

3) 자폐스펙트럼 장애 아동의 사회·정서적 특성

Kanner는 사회적 결손을 자폐증의 핵심 증상으로 간주하였으며, 자폐증이라는 단어 의미도 대인관계를 회피한다는 뜻이라 하였다. 자폐성장애 아동은 대인관계 장애 및 부모와 애착관계가 제대로 형성 되지 않는다. 또한 또래 친구나 타인에게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타인의 감정 상태를 고려하지 않으며, 좋고 싫은 감정 표현도 없다. 상호작용 반응이 현저히 떨어지며, 시선 맞추기나 의사소통이 어렵고, 혼자 노는 것을 즐기며, 놀이 방법의 가짓수도 극히 한정적이다. 혼자 대부분 시간을 보내다 보니 경험, 습득, 배워야 할 것에 대해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조용태, 2012).

4)성인자폐성장장애인의 사회·정서적 특성

자폐성장장애의 정서적 특징은 상호간의 사회적 의사소통과 사회적 상호작용의 지속적인 손상으로, 언어지연, 말에 대한 이해력 부족, 반향어 등 언어적·비언어적 결합을 보이며, 사회적·감정적 상호성의 결핍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신의 견해를 밝히거나 감정을 공유하는 대화를 나누기보다 일방적인 언어로 요구를 하는 데 사용한다. 의사소통의 질적인 측면이 저하되어 불편함을 표현할 때 불안감과 충동성으로 나타나는 정서적 행동으로 사회적 관계에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가져오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만드는 정서적 행동의 특성을 나타낸다(DSM-V, 2016).

3. 정서와 미술치료

미술치료는 말로 할 수 없는 갈등의 경험과 감정을 표현하고 통합 하는 요소를 가지고 있으며 기분을 환기시키고 이완시키는 반응을 일으켜 두려움이나 감정적 스트레스를 완화시키고 감정적 해방의 카타르시스를 가지고 온다(최재영 외,2000). 이러한 감정적 해방을 통하여 색의 감각적 변화를 일으키고 이것이 불안이나 편안함에 영향을 끼쳐 자신을 치유하기도 한다. 색과 형태의 다양한 재료에 의해 통제된 정서와 공격성 등에서 자유로워지거나 그로부터 완화될 수 있다(정여주, 2003). 이러한 작용으로 움직임, 표정과 감정교류가 극히 제한된 장애아의 정서를 활성화시키며 기억을 원할 하게하고 나아가서는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게 한다(강영심,2000).

4. 가정프로그램 제안

가정에서 아동과 함께 해볼 수 있는 정서발달을 위한 미술활동을 소개드립니다. 한 번에 많은 목표를 달성하기보다 아이들의 특성에 맞게 난이도를 조절하여 주시고, 일상생활에서 다양하게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나의 감정 일기예보	
목표	①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색채로 정서표현을 할 수 있다. ② 상황과 감정에 맞는 얼굴표정을 연습할 수 있다. ③ 은유적 표현을 사용해 볼 수 있다.	
준비물	과자상자, 검정 도화지 2장, 하얀 도화지 4장, 그리기도구, 풀, 칼, 가위, 거울	
진행순서	활동내용	유의점
	1. 함께 거울을 보며 얼굴을 살펴 본다.	- 게임이 어려운 경우 함께 얼굴을 살펴보는 활동으로 마무리 해주세요.

<p>2. 코코코 눈 게임을 하며 얼굴 구성 요소에 대해 이해하고 자신의 얼굴을 인지해본다.</p>	<p>- 일상생활 중에도 거울을 보며 다양한 얼굴 만들기 놀이를 통해 다양한 표정을 연습해 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 목욕을 할 때, 로션 바를 때, 머리를 말리거나 묶을 때 등)</p>
<p>3. 최근 아동이 느꼈던 감정에 대해 보호자와 함께 찾아보고 이야기해본다. 4. 그 감정을 날씨로 표현한다면 어떠한 날씨로 표현할 수 있는지 찾아본다.</p>	<p>- 오늘 있었던 일, 가족 여행, 아팠던 날 등, 아동이 직접적으로 경험한 사건을 예시로 하여 진행해주세요. - 감정에 대한 이해가 어렵고 찾기 힘든 아동의 경우 한 가지 감정을 정하여 여러 가지 상황을 시각적 자료로 제공해주세요. (예: 기쁨 - 엄마 아빠와 놀러갈 때, 친구와 간식을 나눠먹을 때, 선생님께 칭찬 받을 때, 좋아하는 장난감을 선물 받았을 때 등)</p>
<p>5. 과자박스에 구멍을 내고 검정 도화지를 붙여주어 TV를 만든다. 6. 하얀 도화지에 아동이 선호하는 그리기 도구를 이용하여 일기예보를 자유롭게 그려본다.</p>	<p>- 같은 보호자가 사용하며, 아동이 가위를 이용할 경우 주의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TV만들기 활동이 어려운 경우 날씨를 표현하는 단계로 바로 넘어가 주세요. - 날씨로 감정을 표현하기 어렵다면 색 표현/ 난화 표현으로 대체해주세요. (예: 기쁨=노랑, 슬픔=검정 / 기쁨=동그라미, 화남=뽕죽한 선 등)</p>
<p>7. TV에 오늘의 기분과 비슷한 일기예보 그림을 끼우고, 작품을 함께 감상하고 자유롭게 이야기한다.</p>	<p>- 아동이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네/아니요'로 대답이 불가능한 열린 질문으로 대화를 유도해주세요. (예: 가장 재미있던 게 뭐였어?, OO이가 즐거움을 무지개로 그려준 이유가 뭐야? 등)</p>

<p>유의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아동의 사진이나 가족사진 등을 활용하여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아동은 보호자와 함께 만들기 활동을 하며 정서적인 안정감과 성취감을 얻을 수 있도록 한다.
<p>참고자료</p>	

5. 결론

22년도에 진행한 만족도 및 욕구조사에서 나온 결과를 반영하여 “발달장애 아동·청소년의 정서적 특성과 정서발달을 위한 미술활동”으로 주제를 선정하여 자료집을 준비하였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며 나타나는 정서 문제로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발달장애인들은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거나 타인과의 소통에 어려움을 느끼며, 때로는 도전 행동이나 정서적 위축 등 여러 다양한 문제들로 표출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적절하게 정서표현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따뜻한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6. 참고문헌

- 강경옥. "장애통합 중재프로그램이 유아의 사회·정서발달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메타분석." 국내박사학위논문 건국대학교 대학원, 2023. 서울
- 김미경. "미술치료가 발달장애아동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전라북도
- 장소연. "발달장애인의 정서적 상호작용을 위한 통합예술치료 프로그램 적용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동덕여자대학교, 2017. 서울
- 임미영. "집단 음악치료가 발달장애아동의 사회·정서·음악적 기술 향상에 미치는 효과." 국내석사학위논문 한세대학교, 2017. 경기도
- 오영아. "집단음악치료프로그램이 성인발달장애인의 정서적 행동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수원대학교, 2017. 경기도
- 이명은. "미술치료가 중복장애를 가진 아동의 정서발달에 미치는 영향." 국내석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문화예술대학원, 2005. 서울

자아존중감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23.12.12~2023.12.18
담당자	정승영, 임은주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자아존중감

1. 자아존중감=자존감

자아존중감이란?(self-esteem, 自我尊重感)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이고 어떤 성과를 이루어낼 만한 유능한 사람이라고 믿는 마음이다. 자아존중감이 있는 사람은 정체성을 제대로 확립할 수 있고, 정체성이 제대로 확립된 사람은 자아존중감을 가질 수 있다.

2. 아이의 자존감은 부모와의 관계에서부터 시작된다

● 엄마의 10가지 자존감 진단표

1. 나는 아이가 말을 안 들으면 화가 난다.
2. 나는 아이가 마음에 안 드는 대답을 하면 말대꾸를 한다고 느껴진다.
3. 나는 아이의 부정적인 감정을 대할 때 스스로 더 부정적이게 된다.
4. 나는 아이가 자신감이 없거나 위축된 모습을 보일 때 다그치는 편이다.
5. 나는 아이에게 애정표현(말과 스킨쉽 등)이 부족한 편이다
6. 나는 어떤 말이든 아이의 말에 끝까지 경청하고 반응한다.
7. 나는 아이에게 화를 잘 내고 많이 혼낸다.
8. 나는 아이가 잘하는 일을 잘 찾아 칭찬해준다.
9. 나는 아이와 내가 잘 맞는다고 생각한다
10. 나는 아이에게 상처를 잘 받는다

매우 그렇다, 그렇다, 그렇지 않다라고 체크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보호자의 자존감을 확인하고 어루어만져주면 양육태도와 보호자 자신의 대면이 이루어지면서 자존감이 높아질 수 있다.

1번 문항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반응하면 권위의식을 가지고 있어 아이에게는 그 옳음이 부담스럽거나 실행하기 어려운 것일 수 있다. 이럴 때에는 아이의 수준에 맞추어야 한다.

2번 문항의 경우 '매우 그렇다'라고 반응하면 보호자와 아이 모두가 힘들다. 원하는 답이 나오지 않을 때, 말을 잘 하던 아이의 마음도 닫히고, 보호자도 지켜보면서 부정적인 감정에 휩싸인다.

또한 위축된 모습일 경우, 안타까운 마음에 화를 내게 된다면 아이는 더욱더 자신감을 잃고 위축된다.

자존감이 높은 보호자의 경우, 내 아이의 기질과 성격의 특징을 알고 아이가 잘할 때를 놓치지 않는다. 칭찬과 격려를 통해 아이는 자신감을 가지고 자기정체성을 알아간다.

3. 보호자의 기대 목표를 낮추면 아이의 자존감이 높아진다

아이에게 만족하지 못한 보호자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대개 기대가 너무 높아 보호자와 아이 모두를 몰아세우는 경우가 많다. 보호자가 아이를 위해 노력한 양에 비례해서 아이를 몰아붙인다. 그러면 아이의 자존감, 다그치는 보호자의 자존감도 떨어지게 된다. 그래서 보호자의 기대 목표를 낮추면 아이의 자존감은 높아진다. 아이가 의미 있는 타인(양육자)에게 긍정적인 존재감을 느끼게 되면서, 아이의 성취감과 보호자의 만족도가 함께 높아지기 때문이다.

4. 보호자와의 관계에서 시작되는 자존감

목표가 낮으면 아이와 보호자의 관계가 좋아진다.

첫째, 아이의 웬만한 행동과 말이 거슬리지 않게 된다.

둘째, 아이를 지적하는 일이 줄어든다. 아이가 주눅 들지 않게 되면서 아이가 보호자를 좋아한다. 결국 아이와 보호자의 관계가 좋아지면 ‘다’ 좋아진다. 성취감은 자존감을 구성하는 주요 요인으로 성취감을 높이는 방법은 보호자가 자신의 목표를 낮게 잡는 것이다. 목표가 낮으면 얻게 되는 효과로는 첫째, 작은 성취에 만족한다. 둘째, 자신감이 상승한다. 셋째, 자신에 대해 만족하며 자존감이 안정을 유지한다.

5. 엄마와의 상호작용이 아이의 자존감을 키운다

가족과의 상호작용과 어린 시절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아이는 자존감을 형성한다. 그 중에서 아이의 첫사랑인 엄마는 아이의 자존감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기대와 격려가 담긴 엄마의 말은 아이의 자존감을 키운다.

자존감은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자존감은 아이가 자기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다. 어린아이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고 있는 시기라 “나는 누구야.”, “나는 어떤 사람이야.”라고 자신 있게 말하기 위해서는 누군가 알려주는 일이 필요하다. 이때 존재감을 키우는 엄마의 말이 도움이 된다.

둘째, 자존감은 타인이 자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대한 느낌이다. 그러므로 아이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 가장 빈번하게 상호작용하는 사람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셋째, 자존감은 자신을 존중하는 사람을 만나면 높아진다. 아이가 타인에 비친 자신의 모습으로 스스로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 자존감이 높은 아이는 엄마로부터 이 3가지 충족시키는 말을 들었을 확률이 높다. 아이의 생각에 공감하고, 아이의 눈을 바라보고, 아이의 모든 감정에 소중히 반응하며, 말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아이에게 반응을 보이며 관심을 기울이는 엄마, 결국 ‘엄마 말’은 언어와 비언어적인 것 모두를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 보호자의 육아 자존감 높이기

엄마의 육아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른 보호자의 육아와 비교하지 않는다. - 다른 아이의 잘난 점을 내 아이의 부족한 점과 비교하지 않는다. - 완벽한 육아는 없다는 걸 인정한다. - 아이를 바꾸려고 애쓰지 않는다. - 학교에서도 다른 친구들과 잘 협동한다 - 이만하면 괜찮은 엄마라고 자주 격려하고 위로한다.
아이의 자존감을 높이는 보호자의 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존재감을 부각시키는 말 “사랑해.” : 나는 사랑받는 존재야. - 가치감을 높이는 말 “고마워.” : 내가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 존중하는 말 “기다릴게.” : 나를 있는 그 자체로 존중하는구나, - 긍정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말 “미안해.” : 나를 진정한 인격체로 대하는구나. - 용기를 주는 말 “괜찮아(그럴 수 있어).” : 실수와 실패는 할 수 있는 거야. 다시 해보자.

6. 우리 아이 스피치, 자존감과 함께 자란다

‘나의 말은 소중한해.’, ‘내가 말하면 잘 들어주잖아.’ 하며 자신의 말에 자부심을 갖게 되면 아이 내면에 자존감이 형성된다. 말은 생각이고 생각은 말로 표현된다는 인지와 언어와의 상관관계로 볼 때, 말만 잘 들어줘도 자존감 높은 아이로 만들 수 있다. 말을 경청한다는 건 너를 존중한다는 의미로 가치감을 높여주는 것이다.

7. 공감과 경청의 표현을 하라

공감받고 자란 아이가 공감도 잘한다.

공감과 경청의 5가지 표현 방법을 살펴보면 먼저 아이를 쳐다본다. 두 번째, 아이의 말에 웬만하면 고개를 끄덕여라. 잘 듣고 있다는 표시를 해야 신이 난다. 세 번째, 아이의 말을 들을 때 표정을 입체적으로 하자, 기쁠 때는 환한 표정, 놀랄 때는 놀라는 표정 등으로 공감의 반응을 입체적으로 보여라. 네 번째, “그랬어?” “그래?” “어머나!” 등의 추임새를 넣자. 마지막으로 끝까지 잘 들었다는 표현을 하자. 예를 들면 “어쩌면 이렇게도 생생하게 전달도 잘할까?”, “우리 00이 말하면 엄마도 마치 거기에 있던 것 같아.” 등으로 표현해볼 수 있다.

● 판소리를 응용한 경청과 공감 7단계

- 1단계 : 고수가 북을 들고 나와 자리를 잡고 앉듯 보호자도 자리를 잡고 앉아라.
- 2단계 : 명창을 보듯 아이에게 집중하라. 고수는 항상 명창을 향해 집중한다.
- 3단계 : “얼쭈!”, “툭!” 고수가 북을 치듯 들을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를 하라, 고개를 끄덕이거나, 혹은 얼굴 표정으로 들을 준비가 되었음을 표시한다.
- 4단계 : 시종일관 명창에게 시선을 떼지 마라. 아이가 말할 때 가스 불을 끄러 간다든가 휴대폰을 만진다든가 하면 존중받는 느낌이 줄어들고 대화의 맥이 끊어진다.
- 5단계 : 명창의 ‘아니리’와 ‘너름새’에 고갯짓과 표정 등으로 화답하라.
- 6단계 : 명창의 창 사이에 적절한 추임새를 넣듯 감탄사를 넣어라. 아무 때나 추임새를 넣으면 끼어들기가 되어 맥을 끊으므로 아이의 말 중간중간에 감탄사 및 피드백(아이 말의 핵심어를 활용)을 한다.
- 7단계 : 명창을 완창하게 하라.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끝까지 다해서 스스로 만족하게 한다.

8. 가정에서 연계된 놀이 방식

놀이활동은 미적응이나 소통의 어려움 등 특정한 상황에 맞게 설계되어야 한다. 아이들을 위한 몇 가지 놀이활동을 소개하겠다.

놀이방식	유의사항
<p>1. 다양한 감각 체험 놀이</p> <p>각 아이의 선호도와 적응능력에 맞는 다양한 감각 체험을 제공한다. 터치, 냄새, 소리, 시각적 자극 등을 활용하는 활동으로 감각적으로 자극을 주어 자아감을 향상시킨다.</p> <p>ex) 터치와 감각놀이(실, 부드러운 천, 거친 표면의 재료 등), 소리와 청각적 감각놀이(음악, 동물 소리, 환경 소리 등), 시각적 감각놀이(다양한 색상과 빛, 반사 재료, 빛의 반사, 컬러 플레이트 등), 후각적 감각놀이(식재료, 꽃, 향수 등), 물리적 움직임과 감각놀이(스윙, 등받이 의자, 다양한 터널 등)</p>	<p><u>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부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하며, 개별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각의 특성과 선호도를 고려해서 체험을 선택하도록 유도한다.</u></p> <p><u>또한 모든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성과 편의성을 높이며, 참여 유도과 선택과 의견을 존중해야된다.</u></p> <p>감각 체험을 처음 하는 아이의 경우 적응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어야 한다. 감각적 자극이나 활동을 천천히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강도를 늘린다. <u>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쓸 수 있다.</u></p>

<p>2.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놀이</p> <p>*비버 보드(Beeper Board)나 통신 보조 도구를 활용하여 소통 능력을 향상시키고 상호작용을 도모한다. 이를 통해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p> <p>*비버보드(Beeper Board)란? 청각장애 인이나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한 의사소통 도구 중 하나, 통신 보조 도구로 사용되며, 간단한 메시지나 의사소통을 위해 소리나 빛을 이용한다.</p>	<p><u>참여를 유도하는 활동을 선택하여, 존중과 이해를 통한 상호작용으로 의사소통의 방식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상호작용을 통해 의사소통을 활성화 한다. 긍정적인 강화와 피드백을 하면서 의사소통 시도를 긍정적으로 인정하고 강화한다. 그러면 의사소통을 더욱더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다양성과 유연성으로 다양한 의사소통 방식을 허용하고 유연하게 대처한다.</u>(언어, 제스처, 그림, 음성 등)</p>
<p>3. 감정 인식과 표현 놀이</p> <p>감정을 알아보고 표현하는 게임을 통해 아이들에게 감정을 인식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감정을 나타내는 그림 카드를 활용하여 그 감정을 표현하거나, 특정 상황에 대한 감정을 토론하고 이해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p>	<p><u>감정 인식의 시작점으로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기 시작할 때, 기초적인 감정부터 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긍정적인, 부정적인 감정까지 다양한 감정을 인식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 감정 표현에 대한 자유로움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데 있어 자유로워야 한다. 어떤 감정을 표현하든지 부끄럼이나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 도와줘야 한다. 사전 지식 제공으로 감정에 대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고, 그 감정이 어떤 상황에서 발생하는지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다른 사람의 감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 긍정적인 감정 강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기쁨, 만족, 기대 등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돕는다. 언어보다는 비언적 표현 강조 하면서 언어적 표현 능력이 부족한 경우, 제스처, 표정, 몸짓 등 비언어적인 방법을 통해 감정을 표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u></p>

<p>4. 자아 강화를 위한 미술 및 공예 활동 다양한 미술 재료를 활용하여 자아를 표현하고 강화하는 활동을 진행한다. 모델링 클레이를 사용하여 자신을 표현하는 조각을 만들거나, 색종이와 재료를 사용하여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콜라주를 만들 수 있다.</p>	<p><u>자유로운 표현을 장려</u>하면서 자유로운 감정, 생각,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u>비판을 자제</u>하고 <u>긍정적 피드백</u> 제공하며, <u>다양한 재료와 기법</u> 제공하여 창의성을 발휘하고, 다양한 경험할 수 있도록 한다. <u>감정표현을 위한 작품</u>으로 색상, 묘사 기법, 형태 등을 활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나타낼 있도록 돕는다. <u>자아감 증진을 위한 주제</u> 선택을 하는 것이 좋다. 이를 통해 자아의 발견과 표현을 도와줄 수 있다. <u>창의성과 자율성을 존중</u>하여 아이디어를 발전시키고, 작품을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준다.</p>
<p>5. 자기 주도적인 놀이 활동 아이들이 자기 주도로 선택하고 원하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는 그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선호도에 맞춰 자아를 발견하고 자아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p>	<p><u>다양한 선택의 폭</u> 제공을 하여,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u>안전성과 관리</u>를 하며, <u>자율성을 존중</u>해주면서 놀이를 할 때, 개입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자유롭게 놀이를 선택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u>참여유도</u>가 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그 선택의 존중하고, 놀이에 관심을 표현하며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u>필요한 자원과 재료</u>를 제공하여 창의성과 상상력을 자유롭게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놀이 중에 대화하거나 의사소통하는 데 필요한 <u>언어적 지원</u>을 제공한다.</p>

9. 결론

전년도 욕구조사 결과, 가정에서 아동과 보호자의 역할에 대한 내용으로 ‘자아존중감’이라는 제목으로 제작하였다.

자존감은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보호자가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아동의 자존감을 깎아내릴 수도 있고, 칭찬의 말 한마디가 자존감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만큼 보호자가 아동에게 어떤 태도로 대하는지 굉장히 중요하며, 아이의 기질과 성격에 따라 보호자의 태도는 달라져야 한다. 또한 공감과 경청을 하면서 아동이 자신의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으면서 자신의 표현 및 주장이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보호자의 자아존중감도 생각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며, 아동의 자아존중감도 올려줄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것이 좋겠다.

10. 참고자료

- 임영주, 2020, 우리 아이를 위한 자존감 수업, 원앤원에듀

부모교육 23-03

손의 기능과 운동방법



팀 명	기능향상지원1팀
일 시	2023.12.13. ~ 12.22
장 소	온라인 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손의 기능과 운동방법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작업재활실

작업재활실 보호자교육

손의 기능과 운동방법



손의 기능

손은 감각인식, 운동, 동작 기능을 수행합니다.



감각인식

촉각, 압력감각, 진동
감각, 온도감각, 통각
과 근육 및 관절의
움직임 감각을 통해
사물을 식별함



운동

관절의 형태에 따라
굽히고, 펴고, 모으는
움직임을 통해
여러가지 동작을
만들어 냄



동작

손과 손가락의 다양한
움직임을 조합하여
일상생활에 필요한
동작을 적절하게
수행함

감각인식

손에서 느껴지는 다양한 감각자극을 통해
눈으로 보지 않고 사물을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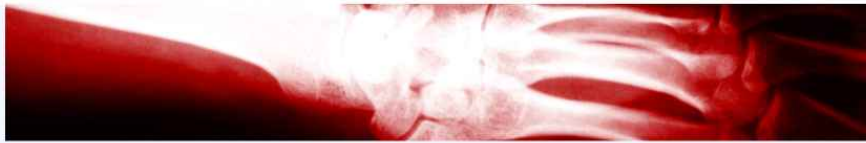
- 01 다양한 피부감각을 통해 질감 등을 알 수 있다.
- 02 근육과 관절감각을 통해 사물의 크기를 알 수 있다.

다양한 감각요소

- 촉각** : 사물이 피부에 닿는 것에 대한 감각
- 압각/진동각** : 피부가 외력으로 눌리는 것에 대한 감각
- 온도감각** : 뜨겁고 차가운 것에 대한 감각
- 통각** : 피부가 아픈 것에 느끼는 감각
- 근육감각** : 근육이 늘어나고 줄어드는 것에 대한 감각
- 관절감각** : 관절이 굽혀지고 펴지는 것에 대한 감각

운동

손의 구조를 이루어 있는 다양한 관절의 형태와 구조에 따라 다양한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 01 19개의 손가락 뼈와 8개의 손목뼈, 2개의 팔뚝뼈로 구성된다.
- 02 다양한 관절 형태에 따라 움직임을 만들어 낸다.

각 관절의 운동방향

손가락 : 굽히기, 펴기

엄지손가락 : 굽히기, 펴기, 모으기, 벌리기, 맞섬

손바닥 : 모으기, 벌리기, 굽히기, 펴기

손목 : 굽히기, 펴기, 오른쪽 편위, 왼쪽 편위

동작

손의 움직임을 바탕으로 외부 사물을 다루고 조작하는 과정으로 외부환경과 상호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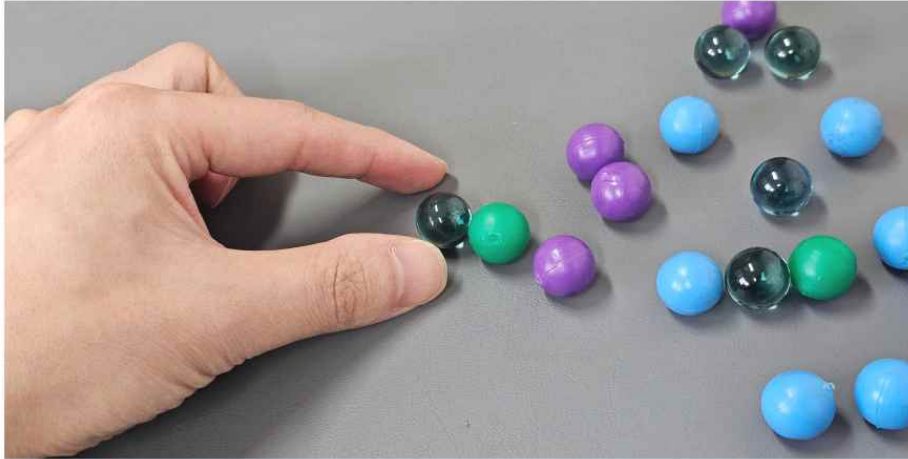


- 01 한 손으로 움직이는 경우에는 조작이라 할 수 있다.
- 02 양손으로 같이 움직이는 경우, 협응이라 할 수 있다.

손의 다양한 동작

잡기: 갈고리 잡기, 원통 잡기, 그릇 잡기, 구형 잡기
집기: 측면 집기, 삼점 집기, 손가락 집기, 손끝 집기
놓기: 자유롭게 놓기, 블럭 쌓기
손내 조작: 손가락에서 손바닥, 손바닥에서 손가락, 옮기기, 단순돌리기, 복잡하게 돌리기
양손기술: 양쪽 유지, 교대 움직임, 동시 움직임

작은 구슬 집기



손가락으로 모양을 만들어서 구슬을 집어 듭니다.

손 끝으로 잡는 것이 가장 좋지만, 모든 손가락을 사용한 굽어서 집는 방법부터 엄지와 검지를 사용한 손끝으로 집기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수행해도 됩니다.

수행환경으로도 활동을 조절할 수 있는데, 매끄러운 바닥에서 하는 것부터 푹신한 수건 위에 하는 것으로 쉽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작은 구슬 집기

우리 구슬 집어서 병 안에 넣어볼까?

쉬움

손으로 굽어서 잡기

조금 폭신한 수건 위

엄지-검지-중지로 모아 잡기

일반적인 평평한 바닥 위

여러움

엄지-검지 손 끝으로만
잡기

움직이는 경사면 위

▶ 집에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활용해서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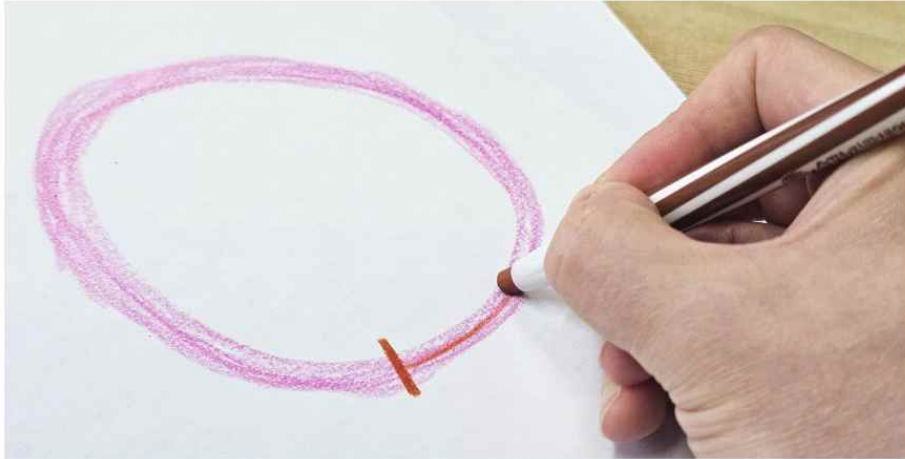
음료수 병에
색깔별로 넣기
색 인지와 연계

예시 2)



안보고
특정한 크기의
구슬 찾기
촉각분별능력 사용

종이에 따라 그리기



그려진 선을 보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그리는 것입니다.

종이에 여러가지 모양을 먼저 그리고, 그것을 손이나 연필 등으로 따라 그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미리 그려놓은 선을 얇게 하거나, 꺾인 선을 만드는 방법으로 난이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연필을 떼지 않고 그리거나, 그려할 선을 여러개 교차시키는 방법으로도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종이에 따라 그리기

그려진 그림을 보고 위에 같이 그려볼까?

쉬움

두꺼운 색연필 선을
따라 그리기

간단한 도형

형광펜 선을 따라 그리기

여러 개의 도형

어려움

종이 밑에 그려진
선을 따라 그리기

복잡한 도형이나 무늬

▶ 그려진 선을 보고 동일하게 그리도록 손을 세밀하게 조작하는 활동입니다.

예시 1)



선 따라 그려서
그림 완성하기
형태인식 지각과
연계

예시 2)



간단한
미로 찾기
인지능력과 연계

손가락 감각 놀이



손으로 터치하셔도 되고, 연필이나 빨대 등으로 하셔도 됩니다.

손과 손가락에 대한 감각자극을 제공하고, 이를 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손에 대한 신체상을 정리하고, 협응적인 움직임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간단한 마사지 후에 제공할 수 있으며, 인식을 위한 자극을 제공할 때, 운동 자극으로 주시면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손가락 감각 놀이

자 이제 엄마가 만지는 손가락이 어떤건지 맞춰봐

쉬움

손가락을 움직이며
여러번 만진다

관절움직임 동반

손가락을 간단하게 터치한다

깊거나 날카로운 자극 제공

어려움

손가락의 한 부분을
살짝 터치한다

얇고 짧은 자극

▶ 사전에 간단한 '마사지'와 '부위 이름 알기'를 하면 더 쉽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예시 1)



움직여준 손가락
똑같이 움직이기
손에 대한
움직임 감각 인식

예시 2)



손가락 건드린
순서대로 말해주기
기억능력과 연계

손가락 감각놀이 [마사지]

손에 대한 간단한 마사지로 신체인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름 알기

손가락의 이름을 먼저 알려주세요. 하나씩 만져주면서 이름을 알려 주세요.

+

쓸어주기

한 부위씩 몸쪽부터 바깥으로 쓸어주세요. 강하게 쥐기보다 살짝 눌러준다는 느낌으로 쓸어주세요

+

천천히 움직이기

각 부위별로 움직임이 가능한 범위 내로 천천히 움직여 주세요. 이름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습니다.

손은 스스로가 의도를 가지고
많이 활동할수록 기능이 향상됩니다.
많이 칭찬해주시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궁금하신 점은 담당자에게 문의 주세요.



보호자를 위한 근골격 질환 예방



팀 명	기능향상지원 2팀
일 시	2023년 09월 04일~2023년 09월 15일
장 소	서면교육



남동강아인종합복지관

보호자를 위한 근골격 질환 예방(어깨)

1. 보호자의 정의

-친족 또는 가족 중 부양의무를 맡고 있는 사람. 가족 구성원 혹은 돌봄 종사자 모두를 뜻함.

-아이를 바로 옆에서 케어해주는 보호자는 가장 가까운 아동의 기능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됨.

2. 보호자의 근골격 질환 발생 구조



-보호자의 근골격 질환 발생으로 아동 케어에 대한 집중이 어려워지고 아동의 기능이 저하되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됨

-아이를 안거나 이동시킬 때, 식사 보조 시, 요리하기 등에서 허리, 어깨의 손상 가능성이 높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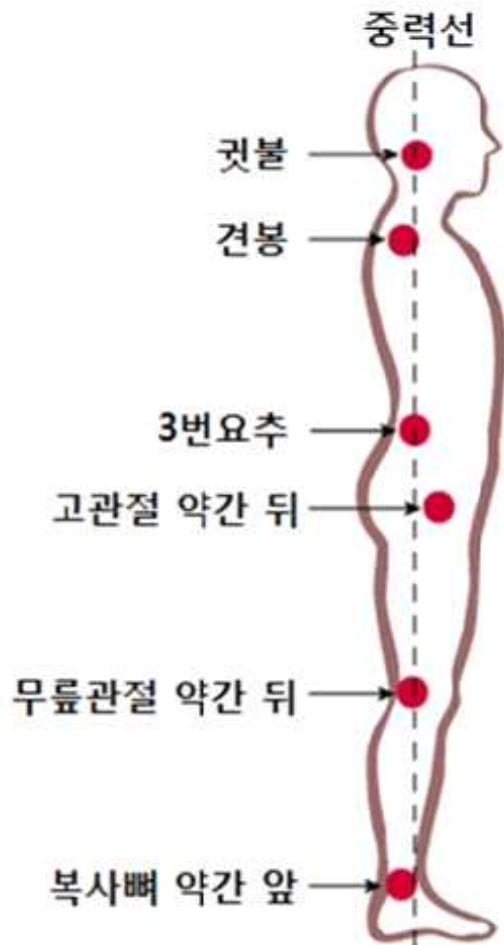
-손가락, 손목, 무릎 등의 손상 가능성이 높음

-나쁜 자세와 반복된 동작은 통증으로 이어지고 지속되면 만성적 통증으로 더욱 큰 문제를 야기 시킬 수 있음

-올바른 자세, 통증 유발 자세를 바로잡는 방법에 대한 교육이 필요함

3. 올바른 자세

1)바르게 선 자세



-중력선: 바로 선 자세에서 중력 중심을 통과하는 수직선

-신체의 특정 부위들이 바르게 중력선에 위치해어 최소한의 힘으로 기능적인 움직임이 가능함. 중력선에서 벗어날수록 몸의 중심을 잡기 위해 더 많은 근육과 인대가 스트레스를 받게 됨

2)물건 들기의 올바른 방법



① 허리가 아닌 팔, 다리 근육 사용하기

-물건을 들 때 무릎을 충분히 구부리지 않으면 허리를 더 많이 숙이게 됩니다. 허리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릎을 구부린 뒤 상체가 숙여지는 것을 최소화 합니다.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곧게 펴고 팔, 다리 근육을 이용합니다.

② 몸과 물건이 가깝게 밀착

-물건을 잡을 때 물건을 최대한 본인의 몸 쪽으로 가깝게 붙인 후 일어나도록 합니다. 물건이 몸보다 앞으로 나와 있는 경우 허리에 부담이 더욱 가해집니다.

3) 아이 안는 올바른 방법



- ① 귀, 어깨, 골반이 일직선상에 있도록 바르게 선 자세를 취합니다.
- ② 다리를 정확히 바닥에 지지합니다.
- ③ 아이의 머리를 앞가슴에서 목 부근에 둡니다.
- ④ 최대한 몸에 가깝게 위치시킵니다.
- ⑤ 팔을 벌리거나 들지 말고 양 겨드랑이를 조이고 한 손으로 엉덩이를 받치고 다른 한 손으로는 등을 떠받칩니다.

4. 통증 발생 시 응급처치 요령



- ① 고정시키기(Protection)
- ② 움직임 최소화하기(Rest)
- ③ 얼음 등으로 체온 내리기(Ice)
- ④ 부종, 반상출혈 등이 심한 경우 손상 부위 압박하기(Compression)
- ⑤ 심장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기(Elevation)

5. 속 근육 vs 걸 근육

① 통증 발생 기전

-몸을 움직이는 데 여러 개의 근육들이 유동적으로 관여하는데, 이 중 하나의 근육이 제 기능을 못하면 나머지 근육들에 무리가 감

-필요한 근육을 조화롭게 사용하지 못한 채 움직임을 반복하면 다치거나 염증이 생겨 통증이 생김

*통증 발생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본 교육에서는 통증의 발생 원인을 근육 불균형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② 속근육 vs 걸근육



“
몸을 바르게
지탱할 수 있도록
잡아주는 역할



“
몸을 움직일 때
힘을 쓸 수 있게 하는
역할

-속 근육: 뼈와 가까운 심부에 위치하고 자세를 안정시키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중력에 대항하고 밸런스를 잡아주는 역할

-걸 근육: 몸을 움직이는 활동성 근육

③ 속 근육의 역할과 중요성

- 속 근육은 척추와 관절, 뼈에 붙어 자세를 유지할 수 있게 함
- 척추를 받쳐 자세를 유지하고 내장을 보호하는 중요한 근육
- 속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주변 근육들이 과도하게 긴장하여 허리, 골반 등에 통증이 발생하고 요통, 디스크, 협착증 등이 발생할 수 있음

④ 속 근육을 발달시키는 4단계

1단계: 억제 inhibition

- 뭉친 근육을 정확하게 찾아 압력을 주는 것
- 폼롤러와 마사지볼 사용

2단계: 신장 lengthening

- 스트레칭으로 짧아진 근육의 길이를 회복

3단계: 활성화 activation

- 섬세하고 강도 낮은 운동으로 속 근육의 힘 키우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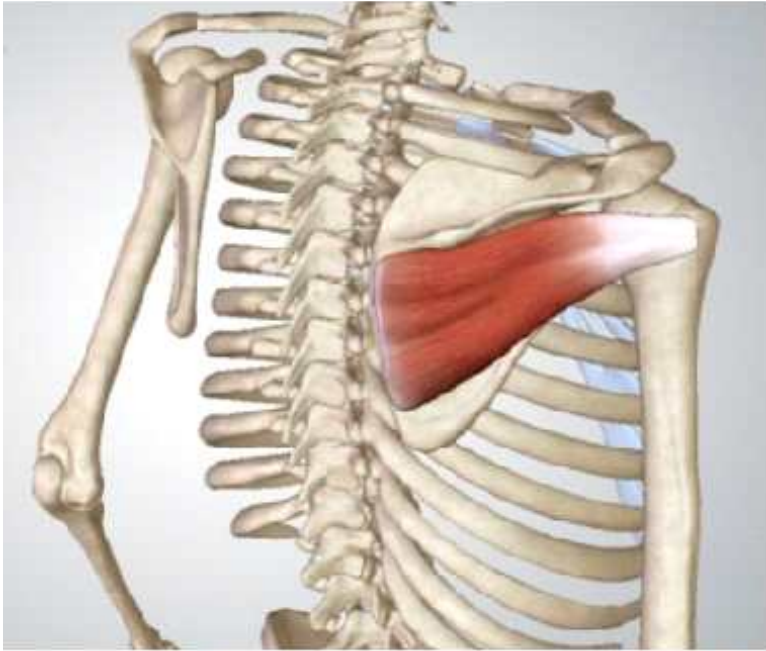
4단계: 통합 integration

- 겉 근육과 속 근육이 전체적으로 제 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통합
- 가벼운 조깅, 요가, 웨이트 트레이닝

6. 근골격 질환 예방 운동(어깨)

1) 어깨가 무겁고 빠르할 때

-타겟 근육: 견갑거근



①뭉친 근육을 정확하게 찾아 폼롤러 혹은 마사지볼을 사용해서 압력 주기



*극하근이 있는 부분에 마사지볼을 놓고 누워 힘을 빼고 지그시 눌러 10초간 유지 합니다.

②스트레칭으로 짧아진 근육의 길이를 회복하기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을 직각으로 세우고 위쪽 손으로 손목을 잡습니다.



*아래쪽 팔의 손바닥이 아래로 향하게 한 후 잡은 손으로 천천히 누릅니다. 가능한 범위까지 내려 10초간 유지합니다.

③섬세하고 강도 낮은 운동으로 속 근육의 힘을 키웁니다.

*아령, 혹은 물병 등으로 난이도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바로 선 자세에서 팔을 직각으로 굽혀 *어깨와 팔꿈치를 고정한 채 손만 수평이 되게 듭니다. 90도로 올렸다가 내립니다.

2) 손과 팔이 저릴 때

-타겟 근육: 소흉근



①뭉친 근육을 정확하게 찾아 폼롤러 혹은 마사지볼을 사용해서 압력 주기



*바닥에 앉아 소흉근이 있는 부분에 마사지볼을 대고 가볍게 누르면서 원을 그리며 굴립니다. 좌/우 10초씩 진행합니다.

②스트레칭으로 짧아진 근육의 길이를 회복하기



*옆으로 누워 무릎을 굽히고 양 팔을 앞으로 뻗습니다.



*위쪽 팔을 뒤로 넘깁니다. 힘을 빼고 10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합니다.

③섬세하고 강도 낮은 운동으로 속 근육의 힘을 키웁니다.

*소흉근은 짧아지기 쉬운 근육입니다. 따라서 어깨 뒤쪽의 능형근을 운동합니다. 능형근이 늘어나면 앞쪽 소흉근이 짧아지게 되는데 마사지와 스트레칭으로 소흉근을 늘리고 능형근 운동을 하면 더 효과적입니다.



*엎드려서 양 팔을 굽혀 옆으로 벌립니다.



*상체를 들면서 양 팔을 들어 팔꿈치를 맞댄다는 생각으로 뒤로 모읍니다. 10~15회 반복합니다.

3) 팔을 올리기가 어려울 때

-타겟 근육: 전거근



*전거근은 어깨와 갈비뼈에 부채처럼 펼쳐 있는 근육으로

1. 팔을 앞으로 뺀 동작

2. 팔을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

3. 몸통에 어깨뼈를 고정하는 역할

을 하는 어깨뼈를 안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민감한 부분이므로 마사지는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①스트레칭으로 짧아진 근육의 길이를 회복한 후



*양 발을 어깨너비로 벌리고 서서 한쪽 팔을 굽혀 위로 올리고 반대 손으로 팔꿈치를 잡습니다.



*팔꿈치를 아래로 내리면서 겨드랑이가 늘어나는 느낌을 받습니다.

②섬세하고 강도 낮은 운동으로 속 근육의 힘을 키웁니다.



*양 손과 무릎으로 바닥을 짚고 앞으로 등과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양 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등을 최대한 위로 올렸다가 내립니다.

7. 결론

아이를 바로 옆에서 케어해주는 보호자는 아동의 기능향상에 가장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아이를 안거나 이동시킬 때, 식사 보조 시, 요리하기 등 아동을 돌보는 과정에서 어깨, 손목 등의 손상 가능성이 높고 나쁜 자세로 반복된 동작이 지속되면 만성적 통증으로 큰 문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근골격 질환에 대한 치료로 열전기, 도수치료, 운동치료 등이 있으나 시간 부족과 비용문제 등의 어려움 또한 존재합니다. 이에 올바른 자세와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세로 바로잡도록 하고 약해진 근육에 대한 기능적 회복을 위한 운동을 제시하였습니다. 일상에서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세를 습득하고 마사지, 스트레칭, 근력운동, 유산소 운동을 습관화하여 건강한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8. 참고자료

1. 대한물리치료사협회-보호자를 위한 근골격 질환 예방 및 치료
2. 이용현(2018). 간단 속근육 운동, 리스컴

부모교육 23-05

언어자극을 위한 기초적인 대화방법 (아이와 대화 잘하는 부모 되기)



팀 명	기능향상지원2팀
일 시	2023.09.04.~2023.09.15
장 소	언어재활실



남동강애인종합복지관

언어자극을 위한 기초적인 대화방법 (아이와 대화 잘하는 부모 되기)

들어가며

금년도 교육 자료는 아래의 고민이 있으신 보호자들이 보면 좋을 주제입니다.

1. 자연스럽게 언어발달, 어휘력을 촉진하고 싶은 부모님들
2. 언어발달이 또래에 비해 느려 향상시키고 싶은 부모님들
3. 아이와 대화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한 부모님들
4. 의사표현이 어려운 아이에게 자극을 주고 싶은 부모님들
5. 아이와 의사소통이 어려워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져야할지 궁금한 부모님들
6. 자발적인 표현을 이끌어 내주기 위한 대화방법이 궁금한 부모님들
7. 아이가 의사표현이 확실치는 않지만 일상에서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고 싶은 부모님들

언어발달 향상을 위해 다양한 언어자극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는데 도대체 그 언어자극을 어떻게 주어야할지 막막한 보호자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다양한 언어자극 중, 아이와 기초적인 대화방법을 통해 보호자분들의 일상적이고 언어자극을 주기 위한 대화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이미 알고 있는 방법이라면 잘하고 있는 점과 잘못하고 있는 점을 피드백 해보면 좋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말은 하면 할수록 늘 듯 아이와의 대화도 노력하면 더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과 대화하고 싶어 합니다. 어른과 아이 모두 대화를 원한다면 그 대화는 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즐거움을 주는 방향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대화시작하기 파트에서 평소 보호자들의 대화 유형에 대해 체크해보면 좋겠습니다

I. 아이와의 대화 시작 준비하기

1. 평소 나의 대화 유형 알아보기

- ① 아이의 기분을 물어본 적 있다.
(예: 그래서 화가 났나?)
 - ② 아이와 대화할 때 의무감을 느낀다.
(예: 나 때문에 아이가 말이 느리면 어떡하지?)
 - ③ 아이가 하나를 물어보면 열 가지를 대답해준다.
(예: 이걸 이래서 이렇고 저걸 저래서 그렇고...)
 - ④ “왜?” 라는 질문에 화낸 적이 있다.
(예: 왜긴 뭘 왜야!)
 - ⑤ 아이가 단어를 잘못 말했을 때 그 자리에서 바로잡아준 적이 있다.
(예: 아버지가 뭐야, 다시 해봐. 할! 아! 버! 지!)
 - ⑥ 말이 많은 아이를 보며 짜증을 낼 때가 있다.
(예: 좀 조용히 좀 해줄래?)
 - ⑦ 아이가 말을 더듬었을 때 똑바로 말해보라고 시킨 적이 있다.
(예: 왜 말을 더듬어. 똑바로 말해봐. 어서)
 - ⑧ 말은 자연스럽게 늘기 때문에 부모가 할 일은 없다고 생각한다.
 - ⑨ 말 대신 행동으로 벌을 준적 있다.
(예: 그만해 라고 말하는 대신 놀고 있던 장난감을 치운다)
 - ⑩ 말로 조건을 걸어 아이의 행동을 통제할 적이 있다.
(예: 밥 안 먹으면 장난감 안줘)
-

⇒1~3번 문항 체크: 아이와의 대화에 적극적인 분

4~8번 문항 체크: 아이의 표현을 위축시키고 어휘나 문장표현을 돕는데 소극적

9~10번 문항 체크: 명령적 언어 통제유형으로 아이들의 문장 표현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4~10번 문항에 체크가 있다면 교육자료를 보며 공부해보아요^^

2. 엄마 아빠의 대화 특징 활용하기

1) 엄마와 아빠는 대화방식이 달라요

엄마: 공감하는 언어표현

아빠: 원인을 알려주고 해결방식을 제시하는 언어표현

◆ 아이가 길을 가다 넘어지면

엄마: 어떡해, 어떡해. 무릎이 빨개졌네, 아유 아프겠다(아이의 아픔에 공감)

아빠: 이런, 돌에 걸려 넘어졌구나, 집에 가서 약 바르자(원인을 알려주고 해결)

⇒ 언어발달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두가지를 한 번에 말하는 것이 좋음

“돌에 걸려 넘어졌구나. 아프겠다. 빨리 집에 가서 약 바르자”

2) 특징

- 공감하는 언어는 어휘가 풍부하고 문장도 더 길어서 배울 점이 많음
- 지시하는 언어는 짧고 간단해서 아이가 이해하기 쉽지만 일방적임
- 공감하는 언어가 아이의 언어발달에 더 좋음
- 다만 충분히 말을 주고받을 상황이 안 될 때(위험하거나 잘못된 행동을 할 때) 짧고 쉬운 말로 지시해야 전달이 잘 됨
 - ⇒ “그걸 손으로 잡으면 뜨거워서 다쳐, 다음에는 그러지 마” 보다 “조심해, 뜨겁다”처럼 분명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음
- 엄마의 언어자극은 관련 낱말을 들려주며 언어이해를 돕기, 아빠의 언어자극은 돌발적인 상황을 연출해 언어표현 유도 등 두가지 방식을 조합하는 것이 좋음

3. 아이의 언어발달을 돕는 부모의 마음가짐

아이와 대화가 잘 안 되는 이유는 어른마다 대화습관이 있고, 아이들에 대한 편견도 있기 때문입니다. 언어발달을 돕는 대화법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노력이 필요합니다.

1) 이 아이도 나도 똑같은 인간이구나

- 아이를 통제하려는 대상으로 봄 (X)
 - : 어른들은 아이들과 대화하기보다 가르치고 통제하려고 하며 ‘아이들=골치거리’라는 생각이 들고, 아이들과 함께 있다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것만 눈에 보임
-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봄 (X)
 - : 아이가 잘못되나 어떡하나 싶어 노심초사하게 되고 그런 마음으로 아이와 시간을 보내면 금세 지치고, 온전한 대화는 불가능해짐
- 통제할 대상,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닌, 아이의 미숙함에 너그러워지기
- 어른과 아이의 관계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만난다 생각하기

2) 말을 하기 보단 많이 들어줘야지

- 아이의 말을 끝까지 듣다보면 어른이 말할 기회도 생김
- 마음에 안 들거나 틀린 부분이 있더라도 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주고 다 듣고 나서 고쳐주면 됨
 - 아이와 대화할 때에는 여유가 필요함

3) 아이의 말에 온전히 집중해야지

- 건성으로 대화하기보다 몸을 낮추고 아이를 보며 아이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 아이의 대화는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 경험이어야 함
- 어른에게 자신의 존재를 인정받는다는 신호를 받는다면 신나서 말하게 될 것

4) 아이와 조건 없이 대화해야지

- 가르쳐야지, 똑똑하게 만들어야지 하는 마음은 내려놓기
- 즐거운 시간을 가져야지, 내 마음을 전해야지, 내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나누어야지 하고 다짐하기

-아이와 조건없이 대화하려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풍부해지고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음

II. 아이의 마음을 헤아리며 대화를 이어가기(기초대화)

1. 대화하면 좋은 점

1) 정보교류: 정보를 주고받기, 무엇이 어땠는지, 누가 무엇을 했는지, 왜 그랬는지, 어떻게 했는지, 언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등을 상대에게 알려주며 몰랐던 정보를 얻기도 함.

◆ 정보교류로 언어발달 돕기

- 어른이 아이에게 직접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새로운 낱말이나 문장표현을 제시
·(우유를 가리키며) 예준아 이건 우유야. 우유 해봐. 우-유-
- (길을 가다가) 나은아 이거 나비다 호랑나비네
- (배우하며) 용찬아 할아버지 안녕히 가세요 해야지

2) 정서적 유대감 형성: 생각과 느낌도 포함됨. 자신의 의견을 덧붙이고, 낯스나 표정을 통해 감정을 전달함. 상대의 마음을 알게 되고 나의 마음도 전할 수 있음. 서로를 수긍하고 인정하면서 교감하게 됨. 상호 유대감을 강화함.

◆ 정서적 유대감 형성으로 언어발달 돕기

- 아이의 상태를 어른이 짐작해서 적절한 표현으로 들려주면서 형성
- 아이의 말을 받아주고(수용적 대화) 칭찬을 해서 표현하게 이끌기
- 비언어적 요소인 표정, 몸짓, 눈빛, 목소리 톤 등이 중요

3) 셀프 피드백: 대화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바로 잡거나 상대와 의견을 절충함. 대화는 일종의 거울 역할을 함. 내 말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상대방의 반응에 객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피드백으로 언어발달 돕기

-아이의 말에 반응하되 올바른 표현에는 반응하고 잘못된 표현에는 반응하지 않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올바른 표현을 알려주면서 상대방의 반응을 통해 자신이 해야 할 올바른 표현을 알게 됨

아이: (수저를 집어던지며) 안 해

아빠: (수저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며 차분한 표정으로) 밥-먹-기-싫-어-요-

아이: 밥먹기 싫어요

아빠: 용찬이 밥먹기 싫구나. 그래 먹지 말자

⇒언어발달을 돕고, 어휘력을 늘리며, 아이의 성장을 도움

2. 대화가 자연스러워지는 신호들

- 1) 대화의 시작: 서로의 이름이나 호칭부르기
 - 상대에게 주의를 요청하기, 내 말을 들어보라는 신호임
 - 이름을 불렀을 때 돌아보지 않거나 대답하지 않으면 대화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기도 함
 - 아이가 부르면 다정한 얼굴로 돌아보기
- 2) 대화의 진행: 차례대로 주고받기(turn-taking)
 - 이름 부르기→ 대답하기(돌아보기)로 시작된 대화는 차례대로 주고받기를 통해 진행됨
 - 한사람이 말하면 다른 사람은 듣기, 상대의 말이 끝나면 자기 차례에 말하기
- 3) 차례 바꾸기 및 화제전환: 쉽
 - 말이 끝났다는 신호, 화제를 전환할 때의 신호 '쉽'
- 4) 대화의 종결: 시선거두기, 장소 옮기기

⇒ 느닷없이 대화가 시작되고 끝난다거나, 다른 일을 하면서 대화한다거나, 자꾸 화제가 끊기고 여러 가지 화제가 한꺼번에 등장해서 대화집중이 안된다면 위의 신호를 적용해보기(산만한 아이일수록 시작-진행-끝에 대한 분명한 신호가 필요함)

3. 비언어적 요소의 중요성

- 1) 눈빛은 거짓말을 못한다
 - 아이들은 눈빛을 보며 어른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챈
 - 애정, 반기는, 편안한, 못마땅한, 탐색하는, 책망하는, 미안해하는 눈빛을 알아챈 수 있음
- 2) 표정은 분명하게 짓는다
 - 표정에는 말하는 사람의 기분, 의도가 담김
 - 어릴수록 표정에 민감하나 미묘한 표정까지는 파악하기 어려워 과장된 표정을 좋아하여 어른은 연극배우가 되어야 함
 - 아직 말에 익숙하지 않은 아이에게 어른의 분명한 표정은 최고의 신호임
- 3) 목소리 크기와 억양은 긍정과 부정을 가른다
 - ‘잘한다’가 정말 잘한다는 칭찬인지 비꼬는 말인지 음색과 운율에 따라 판단할 수 있으나 어린 아이들은 잘 알지 못함
 - 어린아이도 긍정의 의미인지 부정의 의미인지는 쉽게 알아챈
 - 긍정의 말은 부드럽고 낮은 반면 부정의 말은 크고 엄격하기 때문임
 - 말끝을 늘이면서 음을 높이면 따라 말하라는 신호로 알아챈 수 있음
- 4) 몸짓은 대화를 계속해도 된다는 신호다
 - 아이가 말할 때 경청하고 있다는 신호로 고개 끄덕이기를 할 수 있음
 - 어른들의 눈빛과 표정으로 의도를 읽고 음색을 통해 감정을 느낌

4. 아이의 말문을 닫는 어른의 말

1) 재촉하기: “시간 없어. 빨리 말해.”

-아이가 설명할 기회, 요구할 기회, 말로 문장을 구성할 기회를 빼앗김

-빨리빨리의 분위기는 아이로 하여금 실패를 예감하게 함

-1분만 쉬어간다는 마음으로 아이의 말을 들어주기

-당장 요구를 들어줄 수 없을 때 우선 요구하고자 하는 바를 듣고 ‘기다려’를 사용하기

2) 예단: “그런 거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그런 거 맞지?”

-자신의 의도를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워 ‘저기’, ‘여기’ 라고 지칭할 수 있으므로 아이의 의도, 지칭하는 것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기

3) 즉시수정: “그게 아니잖아. 똑바로 말해봐”

-아이가 말을 틀리게 하여 고쳐주는 것은 아이가 바른말을 배울 수 있으나 대화가 끊기는 단점이 있음

-이런 상황을 반복경험하면 아이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을 하면서 말문을 닫음

-아이가 ‘선생님이가 말했어’ 라고 오류를 보인다고 예를 들 때 어른들의 ‘똑바로 말해야지’, ‘따라 해봐. 선!생!님!이!’ 보다 ‘선생님이 뭐라고 말했어?’ 라고 어른의 올바른 표현을 들려주기

4) 외면: “알았어. 알았으니까 그만해”

-‘어휴 귀찮아’, ‘저 문제투성이’, ‘너 때문에 내가 못살아’ 등의 어른의 반응이 주는 메시지는 분명함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부정적인 메시지는 아이도 느낄 수 있음

5) 무덤덤한 반응: “어, 그래”

-아이가 어른에게 말을 걸 때에는 원하는 것이 있으며 그것은 물건일수도 있고 관심일수도 있음

-아이가 관심이 필요한 상황에서 관심을 갖고 아이에게 대화를 이어가면 됨

아이: 아빠 이거 봐봐

아빠: (아이가 손으로 가리키는 곳을 보며) 오~ 신기한데?

아이: 빙글빙글 돌아가

아빠: 우와 정말 팽이가 빙글빙글 돌아가네. 어떻게 한거야?

아이: 이걸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당기면 돼

아빠: 아하 이 줄을 끼운 다음에 잡아 당기면 되는구나

6) 아이 수준보다 높은 요구하기: “좀 더 자세히 설명해봐”

-아이가 아직 배우지 못한 어려운 낱말로 말하거나 인과관계에 분석이 필요한 질문을 해서 아이를 당황하게 만들면 아이는 말문을 닫음

7) 알아서 다 해주기: “이거 하자고? 알았어”

-아이가 말도 안했는데 어른이 알아서 해주면 아이는 말할 필요가 없게 됨

-아이가 말을 했을 때에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함

-대화는 아이가 원하는 것을 알아서 해주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말로 표현

하지 않으면 상대가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을 아이 스스로 깨닫게 해주는 것이 좋음

5. “그랬구나”로 아이의 말 수용하기

- 어른들에게 말을 걸면서 자신의 말이 받아들여질지 그렇지 않을지 분위기를 파악함
- 아이의 말 표현을 늘리려면 일단 아이의 말에 호응해주기
- 아이들은 필요한 물건이나 특정행동을 요구하다 커서는 자신을 인정해줄 것을 요구함
- 자기 경험이나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도 인정요구가 숨어있음
- 어른들이 자신의 말을 받아줄 거라 파악하면 준비한 말을 꺼내고, 아니라면 더 이상 말하기를 포기할지도 모름
- 그렇구나, 그랬구나 등으로 호응해주기

6. “정말?”, “어떡해!”, “큰일났네!”

- 대화에도 윤활제가 필요함
- 짧게 용건만 간단히 하는 대화는 감정과 생각을 오롯이 나눌 수 없음
- 아이와 말할 때는 쓸 데 없는 말도 필요함
- 정말?, 헐!, 어떡해, 우와 진짜?, 대-박, 아하! 등으로 대화가 이어지도록 할 수 있음
- 너의 이야기가 흥미롭다 라는 신호를 줄 수 있음

7. “○○라고 말해봐~”

- 말표현이 적고 소극적인 아이, 새로운 낱말이나 짧은 문장표현을 가르치고 싶다면 지시법을 활용하기
- 소극적인 아이들에게 직접적으로 말표현을 요구하는 방식
- 다만 지시법을 자주 쓰면 아이가 스트레스가 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며 가급적 어른이 본을 보이고 유도하되, 그 방법이 잘 통하지 않으면 선별적으로 사용하기

8. 올바른 표현으로 들려주기

1) 특징

- 아이가 틀리게 말하면 바로 고쳐주고 싶겠지만, 잘못하면 아이가 위축되거나 대화의 흐름이 깨질 수 있음
- 고쳐주려는 어른의 의도와 달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고, 의욕을 잃을 수도 있음

-만3세 전후로 어휘도 늘고 문장도 구체화되면서 표현이 다양해지고 오류도 많이 생김

-이러한 시기를 거치면서 말표현은 정교해짐

2) 올바르게 고쳐주는 방법(수정법)

- ① 중간에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은 다음에 바르게 고쳐서 들려주기
- ② 다시 말해보라고 다그치지 않기
- ③ 실망스럽다는 표정이나 못마땅한 눈빛으로 바라보지 않기

3) 주로 보이는 오류

① 조사와 종결형 어미의 오류

-조사오류: 용찬이가▷용찬+가, 나은이가▷나은+가

-종결형 어미 오류: 축구 해요▷축구 하자요, 유치원 가요▷유치원 간다요

② 높임말의 미숙한 사용

③ 서툰 발음

-조음기능이 발달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현상

-턱, 입술, 혀 등 발음기관을 정교하게 제어할 수 있게 되면 소리가 명료해짐

-모든 자음을 오류없이 조음하려면 만 5세 이상이 되어야 함

④ 말더듬

-만3세 전후로 언어는 폭발적으로 성장함에 어휘도 늘고 문장으로도 정교해짐

-많은 시행착오 중 말더듬도 그 중 하나이며 3~5세 사이에 빈번하게 발생

-70~80%는 자연스럽게 소거됨

-아이가 말더듬을 때 말을 마칠 때까지 기다려주기

-말을 더듬을 때 지적을 받으면 오히려 고착화됨

-수개월 이상 지속, 말 더듬을 때 얼굴이 빨개지거나 손짓을 하는 행동이 관찰되거나 학령기에도 발생하여 증세가 심해지는 경우 전문가 도움이 필요

9. 완성하고 풍성하게 해주기

1) 완성법: 아이의 표현을 완성해주는 방법

-빠진 주어/목적어/서술어 붙이기

아이: (신발을 벗으며) 집에 왔어

엄마: (아이 얼굴을 보며) 유찬이가 어린이집 갔다가 집에 왔구나?

-빠진 조사 채워 넣기

아이: (냉장고 가리키며) 우유

아빠: (아이의 얼굴을 보고 냉장고를 가리키며) 그래, 아빠가 냉장고에서 우유 꺼내줄까?

⇒아이가 말한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 약간의 추리가 필요하며 대화에 집중해야함

2) 확장법: 아이의 표현에 말을 보태서 형식과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방법

-~와/과 사용하기

아이: (그림책을 보며) 뽀로로 집에 왔어

엄마: (뽀로로를 손으로 짚으며) 뽀로로가 친구들과 함께 집에 왔구나

-소유격 사용하기

-꾸미는 말 사용하기

아이: (냉장고 가리키며) 아이스크림 먹을래

아빠: (아이의 얼굴을 보고 냉장고를 가리키며) 그래, 우리 어제 사온 딸기 맛 아이스크림 먹을까?

10. 접속사 활용하기

1) ‘그리고’ 로 대화 이어가기: 대등한 서술을 잇기

엄마: 나은아 어린이집에 친구 누가 있어?

아이: 창식이 있어

엄마: 그리고?

아이: 현준이도 있어

엄마: 그리고?

아이: 해빈이도 있어

엄마: 그렇구나, 어린이집에 창식이랑 현준이랑 해빈이가 있구나. (잠시 사이를 두고) 뭐라고?

아이: 어린이집에 창식이랑 현준이랑 해빈이가 있어

⇒ ‘그리고’ 로 아이의 말을 길게 늘리고, 이를 모아서 복문으로 들려주기, ‘뭐라고?’

를 통해 어른이 들려준 문장을 모방하도록 유도

2) ‘그래서’ 로 대화 이어가기: 앞 문장의 결과를 서술

아이: 창식이랑 싸웠어

아빠: 창식이랑 싸웠구나. 그래서?

아이: 창식이 울었어

아빠: 이런, 둘이 싸워서 창식이가 울었구나. 그래서?

아이: 선생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어

아빠: 그랬구나 창식이가 울어서 선생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구나

아이: 응

아빠: 뭐라고?

아이: 창식이가 울어서 선생님이 싸우지 말라고 했어

아빠: 그랬구나. 나은이가 설명을 잘했네.

⇒ ‘그래서’ 로 사건의 결과를 설명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종합해 어른이 문장으로 정리함. 그런 후 ‘뭐라고?’를 통해 아이가 어른의 문장을 모방하도록 유도함. 원인과 결과를 포함하는 문장을 설명을 이끌 수 있음

3) ‘그런데’ 로 대화 이어가기: 새로운 사실을 서술

엄마: 옛날 옛날에 나무꾼이 살았대

아이: 나무꾼이?

엄마: 응 그런데(잠시 쉬었다가) 어느 날 숲에 불이 났대

아이: 불?

엄마: 응 그런데(잠시 쉬었다가) 마침 사슴이 그 숲속에 있었대

아이: 사슴?

엄마: 그런데(잠시 쉬었다가) 그 사슴이 사실은 산신령이었던거야.

⇒ ‘그런데’는 주로 새로운 사실을 추가할 때 쓰임. 듣는 사람이 이야기에 좀 더 집중할 수 있음. 그런데 간혹 ‘그런데’를 질문으로 사용할 때(그래서 뭐 어찌라고? 의 의미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말을 가로막음. 질문의 형태가 아닌 이야기를 흥미롭게 이어가는 용도로 사용하기

11. 다시 말하게 하기

1) 아이가 한 말을 그대로 의문형으로 바꾸기

-대화를 하다보면 상대가 한 말을 확인해야할 때가 있음

-잘못 들었거나 말뜻이 모호할 때 ‘응?’, ‘뭐라고?’, ‘다시 말해줄래?’ 라고 하는데 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면 언어발달을 도울 수 있음

① 아이가 알고 있는 말을 한 번 더 확인시키고 발음을 잡아주기

아이: 엄마 밥

엄마: 밥?

아이: 밥

② 뜻이 좀 더 분명한 문장으로 자신의 의도를 표현하게 하기

아이: 가

아빠: 이것 좀 하고

아이: 집

아빠: 집에 가자고?

아이: 빨리 집에 가자고

2) 예시 후 ‘뭐라고?’ 되묻기: 아이가 따라할 말을 먼저 말한 후 되묻기

-낱말의 뜻을 명확히 알고 명료하게 발음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음

-문장 표현을 유도할 수 있음

-간단한 설명을 연습시킬 수 있음

-‘방금 뭐라고 했지?’, ‘아빠가 잘 모르겠어. 뭐였더라?’처럼 상황에 맞게 다양한 형식으로 되물을 수 있음

12. 질문의 기능과 종류

아이들은 질문이 많음. 정말 궁금하기 때문에 ‘절대자’인 어른이 질문에 대한 답을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임. 아이들은 어른들이 모든 것을 알고 있으며, 늘 사실을 말한다고 생각함. 그러나 어른의 질문은 대답을 통해 행동을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음. 아이가 모르는 것을 알게 하거나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말하게 함.

1) 무엇과 누구: 이름 묻기

-누구야?, 이게 뭐야?

-대상이 명확하고 실체가 있으니 이름을 알고 있으면 대답할 수 있음

2) 어디: 장소 묻기

-장소는 공간이기 때문에 ‘누구’, ‘무엇’보다 개념화가 어려움

-장소는 세분화 되어 이를 모두 알고 있어야 질문에 대답이 가능함

3) 언제: 시간 묻기

-시간은 흐르며 상대적임

-시간이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어휘를 배워야 대답이 가능함

4) 왜: 이유 묻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답하려면 원인을 알아야함

- 과거의 사건이라면 이를 기억하고 그 의미를 이해하고 있어야 함
- 사람과 관련 됐다면 행동의 의도를 알아야 함
-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며 구문적으로도 상당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함
- 5) 어떻게: 방법이나 형태 묻기
 - 방법에 대해 대답하려면 상대에게 설명이 필요함
 - 어휘, 구문적 지식, 시간적 순서의 개념 등 언어적 자원이 필요함

13. 대화의 흐름을 바꾸는 질문의 형식

1) 쉬운 질문

① 단순한 문장 형식의 질문

- 가급적 단순한 문장 형식의 의문문을 사용하기
- 길고 복잡한 복문은 단문으로 끊어 이어주고, 관형구나 절은 풀어서 단순한 형태로 만들어보기

⇒ 오늘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싸운 아이가 누구야? 보다 오늘 누가 어린이집에서 친구랑 싸웠어?

② 선택형 질문

- 네/아니오 또는 이거/저거 식으로 답할 수 있는 질문
- 아이가 소극적이거나 쓸 수 있는 어휘가 많지 않을 때 사용하면 좋음
- 엄마: 사과줄까? 수박줄까? 바나나 줄까?
- 아이: 사과 먹어요

2) 생각을 묻는 질문

- 선택지가 없기에 스스로 답을 찾아서 대답해야함
- 말 표현이 활발한 아이들에게 쓰면 좋음
- 뭐 먹고싶어?, 우리 뭐할까?, 오늘 누구랑 놀거야? 누가 제일 좋아?
- 대화를 길게 할 수 있는 장점, 어른의 질문을 통해 대화를 시작하고 이어가며, 중간에 새로운 화제를 만들 수 있음
- 아이의 수준에 따라 질문의 종류와 형식을 달리하면서 다양한 표현을 유도함

3) 질문이 아닌 질문: 질문을 회피하고 대화가 즐겁지 않음

① 답이 정해진 질문이 아닌 질문

- 너 이거 하라고 했어 안했어?, 도대체 이게 뭐야?, 왜 그랬어?

② 테스트에 가깝거나 명령이거나 비난이거나 혼나는 테스트

- 너 이거 지난번에 가르쳐줬지? 그런데 이게 뭐야?, 할아버지가 영어로 뭐야?

Ⅲ. 그 외 도움이 되는 대화법들

1. 아이가 거부행동을 보일 때 대화법

아이가 ‘싫어, 안 해, 미워’ 와 같은 말들을 달고 살고 ‘왜?, 왜 안 돼?’ 라고 따지기 시작하면 아이와 말싸움이 시작됨. 다양한 방식으로 금지의 이유를 설명해주기

1) 만1~2세: 거부하는 이유를 어른이 대신 설명하기

-이 시기의 아이들은 일상에서 자주 접하는 사물의 이름과 간단한 동사를 이해함

-이해하는 말이 많지 않고 표현도 서툴러서 자신의 상태를 말로 표현하기 어려움

-왜 거부행동을 하는지 어른이 쉽게 알아채지 못함

상황> 아이: (안전벨트 하기 싫다며 발버둥)

아빠: 가만히 있어. 벨트가 안매지잖아

아이: (잠깐 있다가 다시 발버둥 치며) 안해!

아빠: 안 돼! 벨트 매야해. 안 그럼 다쳐!

아빠: (아빠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안 해!

아빠: (화난 말투로) 때리는 거 아니야! 혼나!

아이: (계속 울면서 주먹질을 함)

-이해할 수 없는 거부행동을 보이기도 하며 거부행동을 보이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음(몸상태, 컨디션: 배가 고프, 졸림, 지쳐서 등)

-아이의 상태를 어른이 말로 설명해주면서 대안을 마련해주면 좋음

① 아빠: 졸려?

아이: 졸려

아빠: 그래. 아빠가 안아줄게. 코 자(안아주다가 자리에 눕힌 후 벨트를 채우고 출발)

② 아빠: 답답해?

아이: 답답해

아빠: 휴게소에서 쉬자. 지금 쉬었다가 출발할까? 아님 휴게소에서 맛있는거 먹으면서 쉴까?

③ 아빠: 가기 싫어?

아이: 싫어

아빠: 미안해. 추석이잖아. 큰집에 가야해. 빨리가서 빨리 올래. 늦게가서 늦게 올래?

2) 만3~4세: 거부하는 이유를 대화를 통해 알아내기

-어휘가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형용사를 사용해 자신의 생각과 상태를 표현함

-이유와 방법을 묻는 질문에도 대답할 수 있어서 아이의 상황을 파악하기 쉬움

-구문 지식도 늘어나 조건문으로 말할 수 있고, 대안을 설명하면서 설득할 수 있음

상황> 아이: (안전벨트 하기 싫다며 발버둥 치며)

아빠: 가만히 있어. 벨트가 안매지잖아!

아이: (잠깐 있다가 다시 발버둥 치며) 안해!

아빠: 안 돼! 벨트 매야해. 안 그럼 다쳐!

아이: 가기 싫다고!

아빠: 왜 싫어?

아이: 불편해

아빠: 어디가?

아이: 자리가 좁아

아빠: 자리가 좁아서 불편했구나. 알았어. 그럼 벨트를 좀 느슨하게 해보자

⇒ ‘왜 가기 싫어?’ 라고 묻고 아이는 ‘자리가 좁아서 불편하다’ 라고 대답하자 어른은 벨트를 느슨하게 풀어줌으로써 불편함을 해소해줌(발버둥 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불편하면 자리를 조금 바꿀까? 어디가 좋을까?’, ‘창문을 조금 열어놓을까?’, ‘점퍼 벗을래?’ 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음)

3) 만5~6세: 지금 상황을 바라보도록 이끌기

-집중력이 좋아지는 시기

-복잡한 문장을 이해하고 표현할 줄 알게 됨

-비유나 간접적인 표현도 이해할 정도로 언어적 사고가 발달

-대화할 때 ‘기준’ 이 필요하며 이랬다 저랬다 하면 안됨

-왜 그 행동을 해야하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해줘야 하며 자신의 행동이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지금 상황을 다양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기

상황> 아이: (안전벨트 하기 싫다며 발버둥 치)

아빠: 가만히 있어. 벨트가 안매지잖아!

아이: 벨트 매기 싫어

아빠: 안 돼! 벨트 매야해. 안 그럼 다쳐!

아이: 답답해서 하기 싫다고! 그냥 갈래!

아빠: 벨트를 안 매면 사고가 났을 때 크게 다쳐. 그래서 하는거야.

아이: 운전 조심하면 되지

아빠: 네 말이 맞아. 하지만 운전을 아무리 조심해도 사고는 날 수 있어

아이: 왜 사고가 나?

아빠: 뒤에서 차가 들이받을 수도 있고 앞에 가던 차가 갑자기 설 수도 있잖아. 그래서 벨트를 꼭 매야해. 안 그러면 벌금 내야 된다고

아이: 벌금?

아빠: 그래, 벌금을 내면 아빠가 얼마나 속상하겠니?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의 결과를 말해주면서 아이를 설득함. 이런 대화를 통해 아이는 자신이 불편을 감수해야하는 이유에 대해 이해하게 됨. 무조건 행동을 통제하는 대신 합리적인 이유를 제시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주장이 무시되었다는 생각이 덜 들 것임.

2. 아이의 생떼를 통제하는 말들

1) 생떼 통제하는 방법

생떼를 부리는데 도저히 통제가 안 될 때가 있음. 그럴 땐 아이의 욕구는 어느 정도 인정하면서 아이에게 선택안을 제시하기, 아이는 배려 받았다고 느끼고, 생떼를 부리는 대신 원하는 것을 말로 표현할 것임

상황> 아이: (안전벨트 하기 싫다며 발버둥)

아빠: 가만히 있어. 벨트가 안 매지잖아

아이: (잠깐 있다가 다시 발버둥 치며) 안 해!

아빠: 안 돼! 벨트 매야해. 안 그럼 다쳐!

아빠: (아빠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안 해!

아빠: (화난 말투로) 어허 너 뭐하는 것이야. 때리는 거 아니야! 혼나!

아이: (계속 울면서 주먹질을 함) 미워

⇒이런 행동을 할 때에는 초기에 통제가 필요함

통제> 아이: (아빠의 얼굴을 주먹으로 치며) 안 해

아빠: (침착하게 아이의 손목을 잡고) 안전벨트 하기 싫어?

아이: 싫어

아빠: (침착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안전벨트 하기 싫구나. 그래서 화가 났어?

아이: 싫어. 화났어.

아빠: 내가 미안해. 하지만 안전벨트는 해야 돼. 안 하면 다쳐

아이: (계속 울면서 주먹질 함)

아빠: (주먹질을 못하게 하면서 흔들림 없이 차분한 말투로) 때리지 마. 내가 못 때리게 할 거야.

⇒어른은 아이가 감정을 말로 표현하게 한 뒤 행동을 통제. ‘나’ 라는 인칭 대명사를 사용해 생떼와 같은 문제행동에 대한 금지 주체를 명확하게 하기

상황> 엄마: 이제 그만 가자

아이: 싫어

엄마: 안 돼. 이제 시간 다 됐어.

아이: 안 가!(장난감을 집어 던짐)

엄마: (침착한 말투로) 좀 더 놀고 싶구나. 그럼 말로 해.

아이: 더 놀고 싶어

엄마: 장난감 던지면 못 놀아. 미안하다고 말해. 그러면 5분 정도 더 놀 수 있어.

아이: 미안해

엄마: 장난감 다시 가져와

아이: (장난감 다시 가져옴)

⇒일단 말로 마음을 표현하게 하고 5분 정도 더 놀 수 있는 보상을 주고 아이는 마음을 말로 표현해봤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장난감을 집어던지기 전에 더 놀고 싶다고 표현할 가능성이 높음. 만성화된 생떼에 대처할 때에는 아이의 욕구(놀고 싶음)와 생떼(던지기)를 분리해서 대응하여 욕구는 일정부분 인정하고 그 대신 생떼는 없애기

상황> 엄마: 지금 가면 뽀로로 만화를 볼 수 있어. 더 놀면 그럴 수 없어. 지금 갈거야, 더 놀거야?

아이: 더 놀거야.

엄마: 그래. 그럼 조금 더 놀아.

⇒선택권을 제시하면 배려를 받았다고 느끼게 되어 생떼 대신 대화를 풀게하는 효과가 있음

2) 아이의 생떼를 통제할 때 알아둘 점

① 생떼는 자연스러운 성장과정

- 아이들은 생떼를 부리면서 어른의 반응을 봄
- 자신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가늠함
-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수 있는 어른을 원함
- 아이의 생떼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생떼에 침착해야함
- 단호하고 차분하게 대응하면 아이는 어른을 믿고 따르게 됨

② 금지와 개입은 한 곳 차이

- 어른이 지나치게 아이의 행동에 개입하면 자율성이 위축

-무조건적인 허용은 불안하게 함

③“안 돼”를 말할 수 있는 기준 세우기(아이를 위한 말)

-안전한가?: 위험한 곳에 매달리기, 날카로운 물건 만지기 등은 단호하게 제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가?: 다른사람 때리기, 상점 물건 만지기 등 단호하게 제지

-사회적 통념에 어긋나는가? 공공장소에서 신체 노출하기 등 단호하게 제지

-어른의 마음에 들지 않는 행동(예: 특정 옷 고집하기), 아이의 행동이 다른사람들의 시선을 끌 때(예: 놀이터에서 노래부르기), 아이의 행동이 이기적으로 보일 때(예: 시간 없는데 놀아달라고 하기) 는 “안 돼” 라고 하는 게 맞는지 고민해야함

3. 말로 행동을 통제하는 방법

1) 통제하는 방식

① 명령적 통제: 명령으로 통제하는 유형

-예: “하지마”, “그것도 못해?”, “(아이가 하던걸 빼앗으며) 이리 줘”, “(벌 세우며) 손들어”

-어른이 제시하는 구문이 단순하고 아이가 대꾸할 기회가 없기 때문에 대화가 이어지기 어려움

-언어발달 측면에서 보면 배울게 별로 없음

② 지위적 통제: 사회적 지위를 이용하는 방법

-예: “어린아이가 그렇게 행동하면 못 써!”, “엄마가 하라면 해야지!”, “아빠 말 들어야지” 등 부모-아이, 어른-아이의 사회적 지위가 행동 통제의 근거

-대화의 여지가 좀 더 있지만 대화가 길게 이어지기는 어려움

③ 인성적 통제: 자기 행동의 결과를 느끼게끔 하는 방법

-예: “네가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네가 그런 행동을 해서 엄마 마음이 아프다”,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면 환경이 얼마나 더러워지겠니.”

-아이는 상대의 입장에서 고민해볼 수 있고 원인과 결과를 이해하고 이를 언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김

-언어발달 측면에서는 명령적 통제보다 지위적 통제가, 지위적 통제보다 인성적 통제가 좋음

-대화에서 더 많은 어휘와 문장형식이 사용되고 아이가 질문할 수 있는 여지가 점점 늘어남

-그러나 한계가 있으며 윤리적 판단에 기초하기 때문에 자신의 욕구가 그릇되었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④ 합리적 통제: 스스로 욕구를 유예할 필요성을 느끼게끔 방향을 잡는 방법

-인성적 통제에 한계가 있을 때 쓸 수 있는 통제 방법임

-예: “지금 저 목걸이를 살 수 없어. 하지만 집에 가서 엄마 목걸이를 해볼 수 있는 있어 어떻게 할래?”

- 어른이 상황을 말해주고 두 가지 선택안을 제시하며 뒤에 아이에게 선택하게 함
- 경험을 통해 자기 판단의 결과를 알게 될 것

4. 표현욕구를 자극하는 칭찬 3가지

1) 칭찬하는 말

- 칭찬은 아이에게 커다란 동력임
- 포괄적인 칭찬과 지위를 평가하는 칭찬: 잘했어!, 최고!, 짱!, 1등!, 옹지!
- 즉시 표현할 수 있지만 포괄적인 칭찬은 자주하면 효과가 떨어짐
- 구체적인 칭찬이 필요함
 - ⇒ 달리기를 잘했네!, 대답을 잘했네!, 종이접기를 잘했네!
- 잘했다는 칭찬을 자주 들으면 못하면 안 된다는 인식이 생겨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기
 - ⇒ 달리기를 열심히 했네!(열심히 해서 칭찬을 받음)
- 최고! 보다는 자랑스럽다!, 1등! 보다는 멋지다, 훌륭해!(평가가 아닌 가치를 위한 칭찬이 좋음)
 - ⇒ 과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말을 사용하기

2) 칭찬하는 행동

- 아이가 어릴수록 신체적 반응에 민감함
- 칭찬하는 말과 더불어 놀란 표정, 크게 웃기, 박수치기, 하이파이브, 끌어안기를 하면 효과적임

3) 칭찬용 보상물

- 스티커, 먹을 것, 동영상시청, 장난감과 같은 보상물은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는데 강력한 효과를 발휘함
- 그러나 이 방법은 내성이 생길 수도 있고, 보상물 자체가 부작용이 올 수 있음
- 꼭 필요하지 않다면 안 쓰는 것이 좋고 말과 행동으로도 충분하며 부모의 인정이 최고의 보상이 되어야 함

[출처] 2021, 어휘력 10배 올리는 하루 10분 대화놀이, 김지호, 도서출판 길벗

부모교육 23-06

1차 부모교육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23.04.28.(금) / 10:00~12:00
장 소	3층 강당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교육 평가서 (1차)

1. 사업내용

- 1) 일 시 : 2023년 4월 28일(금) / 10:00-12:00 (120분)
- 2) 장 소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
- 3) 주제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진학 및 진로설계
- 4) 강사 : 박춘희 장학관(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 특수교육팀장)
- 5) 참석인원 : 총 21명
- 6) 실적

세부사업명	목표량	연인원	달성률(%)
부모교육	29	21	72.4
만족도 및 욕구조사	29	21	72.4

7) 업무분장

담당자		담당업무	비고
가족문화지원팀	박성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섭외 및 계획서작성 - 참여자 모집 및 관리, 홍보(공문발송외) ·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사전 준비 및 셋팅 - 부모교육 진행 · 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8) 추진일정

내용	기간	2월 4주	4월 1주	4월 2주	4월 3주	4월 4주	5월 1주	5월 4주
	지원사업신청							
강사섭외								
프로그램 계획								
홍보물 제작								
홍보								
이용인 모집 및 접수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9)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30 - 09:45	사전준비	3층 강당
09:45 - 10:00	참가자 서명 및 강사대기	
10:00 - 11:30	강의진행	
11:30 - 12:00	질의응답 / 만족도설문 / 정리	

10) 강의내용

구분	내용	비고
도입	- 인천특수교육비전 및 인천특수교육 방향 - 특수교육대상영유아 조기발견 지원 및 특수교육지원 강화 - 학생 중심 특수교육지원체계 강화	-
전개	- 협력기반 통합교육 여건 조성 강화 -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에듀테크 활용 맞춤형 교육 지원 확대	
정리	- 장애유형 정도에 따른 교육 지원 확대 (방과후활동, 치료지원, 통학비, 돌봄 지원) - 지역사회연계 진로직업교육 다양화 방안 - 인천특수교육 정책 의견 수렴	

11) 운영방안

① 홍보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보호자에게 안내문 배포 및 본관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을 통한 관내 홍보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특수교육지원센터, 지역 내 어린이집 등 유관기관에 홍보공문발송을 통한 외부홍보
- 일정 : 2023년 4월 14일(금) ~ 2023년 4월 28일(금)

② 접수

- 접수인원 : 28명(참여율 75%)
- 접수일정 : 2023년 4월 17일(월) ~ 4월 27일(목)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③ 진행방법 : 대면 강의

④ 지원 : 한국장애인부모회 부모교육지원사업

⑤ 결과보고 : 5월 4일 공문을 통한 결과보고 제출 후 강사비 입금(228,000원)

2. 평가 및 개선사항

1) 목표평가

- ① 참여인원을 20명을 목표로 계획하였고, 실제 28명의 접수가 이루어지고, 실제 참여는 21명(75%)정도가 참여하여 성과목표를 초과달성(105%)하였음을 확인하였음.
- ② 교육 후 만족도 및 욕구조사 설문지를 통하여 만족도 문항 4점 이상에 대한 목표를 측정하였음. 온라인설문지를 활용하여 참여자 21명(100%) 모두 참여하였고, <특수교육대상의 진학 및 진로과정을 이해>, <특수교육대상의 지원체계를 이해> 하는지에 대한 질문에 두 문항 모두 ‘매우 도움이 되었다’ 14명(66.7%), ‘도움이 되었다’ 5명(23.8%)으로 90.5%가 만족이상의 답변을 보여,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 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담당자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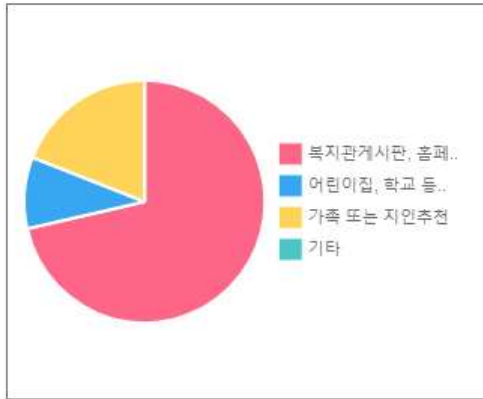
- ① 인천시 내 특수학교, 특수학급, 장애통합 어린이집,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사립 어린이집, 치료센터 등 180여 곳에 진행하여 적극적인 홍보가 진행되었으며, 이에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의 보호자의 참여비율이 높게 나타남.
- ② 등록장애인 뿐만 아니라 특수교육대상아동을 포함하는 내용의 교육주제로 학교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모님의 참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짐
- ③ 인천 특수교육정책을 총괄하는 책임자(장학관)를 강사로 섭외하여 부모의 다양한 의견을 전달하고, 학교내에서의 지원체계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
- ④ 질의응답을 통해 특수학교개설 및 다양한 정책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장애아동을 둔 부모가 장기적인 진로방향을 계획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⑤ 한국장애인부모회 지원사업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수준높은 강사를 섭외하여 교육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학관을 복지관에서 강사로 섭외하였으나, 특수교육과정에 대한 내용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욕구조사대부분이 학교나 교육청에 요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음. - 아동·청소년기의 내용이 주를 이루므로 성인기에 필요한 전공과 및 이후과정연계에 대한 내용이 짧게 안내되어 전환기 자녀를 둔 부모에게 필요한 정보가 부족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조사 내용을 강사에게 전달하였고, 이를 통해 교육정책을 수립하는데 부모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 - 교육주제에 따른 회기를 별도로 구성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자세한 교육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4) 이용인 참여 및 만족도결과

가족문화지원 1차 부모교육을 어떤 경로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까?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복지관계서판, 홈페이지, 카카오톡	15 71.4%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어린이집, 학교 등 타기관	2 9.5%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가족 또는 지인추천	4 19%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기타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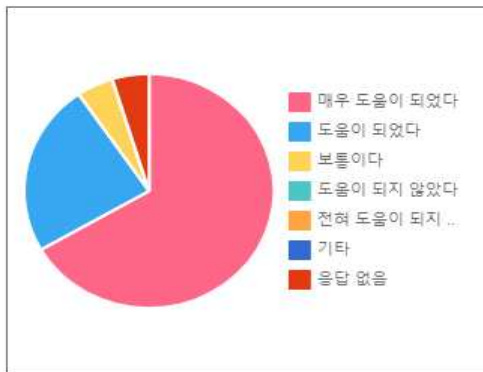
본 교육 내용이 < 특수교육대상의 진학 및 진로과정을 이해 >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14 66.7%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되었다	5 23.8%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2 9.5%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기타	0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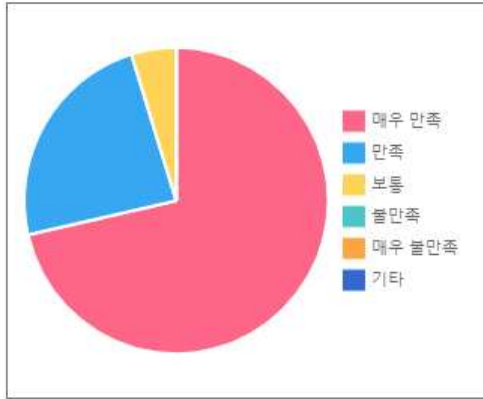
본 교육 내용이 < 특수교육대상의 지원체계를 이해 >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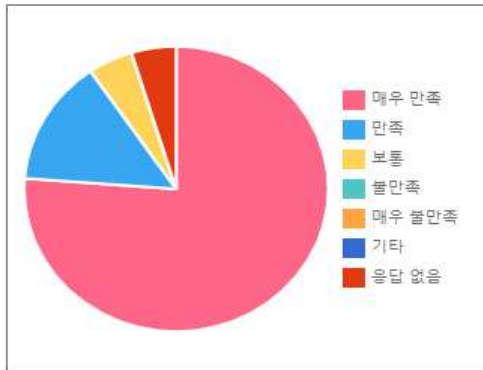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매우 도움이 되었다	14 66.7%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되었다	5 23.8%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보통이다	1 4.8%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0 0%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기타	0 0%
<input checked="" type="radio"/>	<input type="checkbox"/>	응답 없음	1 4.8%

본 부모교육의 주제 및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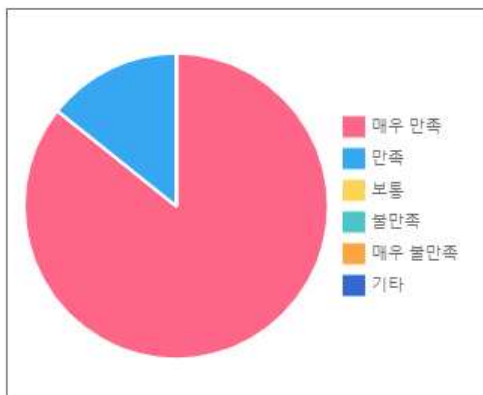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input type="checkbox"/> 응답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15 71.4%
<input type="checkbox"/> 만족	5 23.8%
<input type="checkbox"/> 보통	1 4.8%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0 0%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0 0%
<input type="checkbox"/> 기타	0 0%

본 부모교육이 진행된 시간(평일 오전)에 만족하십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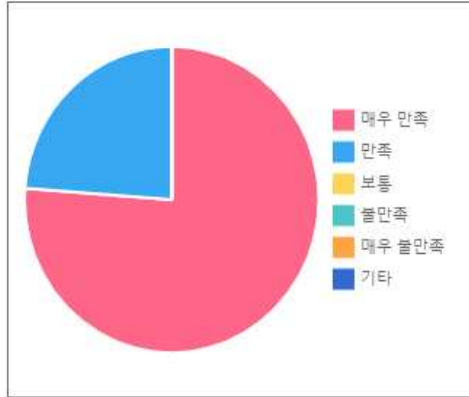
응답	응답수
<input type="checkbox"/> 응답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16 76.2%
<input type="checkbox"/> 만족	3 14.3%
<input type="checkbox"/> 보통	1 4.8%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0 0%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0 0%
<input type="checkbox"/> 기타	0 0%
<input type="checkbox"/> 응답 없음	1 4.8%

본 부모교육이 진행된 장소(강당)에 만족하십니까?



응답	응답수
<input type="checkbox"/> 응답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18 85.7%
<input type="checkbox"/> 만족	3 14.3%
<input type="checkbox"/> 보통	0 0%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0 0%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0 0%
<input type="checkbox"/> 기타	0 0%

본 부모교육 강사에 만족하십니까?



숨기기 취소		정렬 초기화		조합		차트 편집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응답		응답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만족		16		76.2%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만족		5		23.8%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통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불만족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매우 불만족		0		0%	
<input checked=""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0		0%	

교육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듣고 싶은 부모교육주제가 있으시면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일반학교에 장애이해교육을 주지적으로 시행했으면 좋겠어요.

일반학교는 장애인의날에도 가볍게 넘어가니 비장애아이가 특수반아이에 대한 이해도가 낮고 놀리고 싫어합니다.

교원평가를 일년에 3차례정도 하면 좋겠습니다.

1학기에 한번, 2학기에 한번, 학년말에 한번이요. 일반교사들이 교원평가 끝나면 차가워지더라고요, 방치하고 관심주지 않았어요.

일반학교, 방과후돌봄시간에도 특수교사나 치료사 선생님이 개입해서 수업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특수체육이나 작업치료)

방과후 프로그램이 아이들 기준으로 개설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학교)

선생님, 비장애어머님 중수업으로 장애인식강의를 부탁드립니다.

특수교육, 장애인복지 관련하여 자주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의하는 시간이 더 있으면 좋겠어요.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입지가 어떤지 모르지만 통합학급 선생님들께 적극 협조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한번더 내주세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런 기회를 자주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애아이의 문제행동교육

3. 결산

세출		
내용	산출내역	예산
다과비	121,960원×1회	121,960원
총계		121,960원

별첨 1. 교육사진 1부

2. 참여자명단 1부. 끝.

□ 교육사진



교육사진1



교육사진2

부모교육 23-07

2차 부모교육



팀 명	가족문화지원팀
일 시	2023.11.21.(화) / 10:30~12:00
장 소	3층 강당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부모교육 평가서 (2차)

1. 사업내용

- 1) 일 시 : 2023년 11월 21일(화) / 10:30-12:00 (90분)
- 2) 장 소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3층 강당
- 3) 주 제 : 향수만들기 일일강좌
- 4) 연 계 : 리에브리공방
- 5) 참석인원 : 총 13명
- 6) 실적

세부사업명	목표량	연인원	달성률(%)
부모교육	13	13	100
만족도 및 욕구조사	13	13	100

7) 업무분장

담당자		담당업무	비고
가족문화지원팀	박성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섭외 및 계획서작성 - 참여자 모집 및 관리, 홍보(공문발송외) · 사업 진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교육 사전 준비 및 셋팅 - 부모교육 진행 · 사업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만족도 조사 및 결과보고서 작성 	-

8) 추진일정

내용	기간	11월				
		4주	1주	2주	3주	4주
강사섭외						
프로그램 계획						
홍보물 제작						
홍보						
이용인 모집 및 접수						
프로그램 진행						
프로그램 평가						
보고서 작성						

9) 세부일정

시 간	내 용	비 고
09:30 - 10:00	강당세팅	3층 강당
10:00 - 10:30	참가자 서명 및 체험물품 세팅	
10:30 - 11:50	체험진행	
11:50 - 12:20	간식배부 / 만족도 설문 실시 / 정리	

10) 운영방안

① 홍보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프로그램 이용 보호자에게 안내문 배포 및 본관 홈페이지, 게시판, 카카오톡을 통한 안내 홍보
- 장애인부모연대밴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 외부홍보
- 일정 : 2023년 10월 31일(화) ~ 2023년 11월 21일(화)

② 접수

- 접수인원 : 27명(최소인원을 고려하여 접수번호 14번부터는 대기인원으로 모집)
- 접수일정 : 2023년 11월 8일(수) 09:00 ~ 접수인원 마감 시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접수

③ 진행방법 : 대면 강의

④ 체험연계 : 리에브리공방(만수동 1018)

※ 지역 내 기관연계로 체험비 할인혜택(38,000원→30,000원)

2. 평가 및 개선사항

1) 목표평가

- ① 참여인원을 13명을 목표로 계획하였고, 27명의 인원이 접수되었음. 선정인원 중 최소인원이 발생하지 않고 100%참석이 이루어져 목표량달성이 가능하였음.
- ② 교육 후 만족도 및 욕구조사 설문지를 통하여 만족도 문항 4점 이상에 대한 목표를 측정하였음. 온라인설문지를 활용하여 참여자 13명(100%) 모두 참여하였고, <새로운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 <양육스트레스를 감소>에 대한 질문에 두 문항 모두 13명(100%)이 '매우 도움이 되었다'의 답변을 보여, 부모교육을 통해 부모역량강화에 도움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음.

2) 담당자 평가

- ① 교육활동이 아닌 일일강좌 형태의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매우 높은 만족도를 나타내었고, 접수과정에서도 높은 관심을 보임을 확인하였음.
- ② 별도의 시간을 내고, 공방을 찾아 수강해야 하는 형태의 강좌를 준비하여

부모님들의 접근성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었고, “향수”라는 매개를 통해 여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양육으로 지쳐있는 어머니에게 신체·정서적지원을 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었음.

- ③ 지역 내 새로 오픈한 소규모공방과 연계하여 저렴한 가격에 체험이 진행되었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도움을 주었음.
- ④ 프로그램진행 시 자신의 취향과 경험 등을 이야기하며,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고 동료간에 공통된 부분을 공유하여 정서적지지가 원활하게 이루어짐

3) 문제점 및 개선방안

문제점	개선방안
- 선착순접수로 진행되어 온라인 접근성에 어려움이 있는 부모에게 민원이 발생하였음.	- 보다 공정한 이용인 선정을 위해 추후 교육에서는 추천제도를 활용하여 이용인을 선정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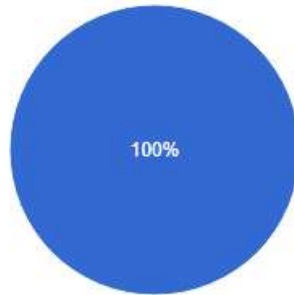
4) 이용인 참여 및 만족도결과



본 교육 내용이 < 새로운 취미활동에 대한 관심 > 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복사

응답 13개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도움이 되었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본 교육 내용이 < 양육스트레스를 감소> 시키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복사

응답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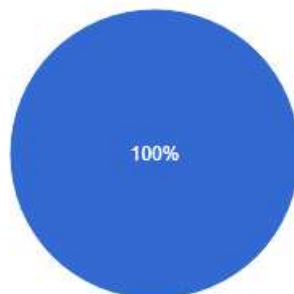


- 매우 도움이 되었다
- 도움이 되었다
- 보통이다
- 도움이 되지 않았다
-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

본 부모교육의 주제 및 내용에 대해 만족하십니까?

복사

응답 13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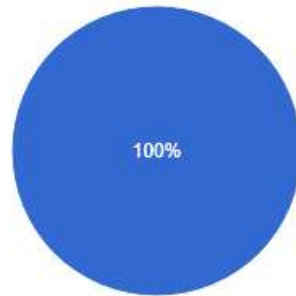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본 부모교육이 진행된 시간(평일 오전)에 만족하십니까?

 복사

응답 13개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본 부모교육이 진행된 장소(강당)에 만족하십니까?

복사

응답 13개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본 부모교육 강사에 만족하십니까?

복사

응답 13개



- 매우 만족
- 만족
- 보통
- 불만족
- 매우 불만족

교육에 대한 건의사항이나 듣고 싶은 부모교육주제가 있으시면 자세하게 적어주세요.

주부로 살면서 향수는 사치라 생각했는데
이런 기회에 접하게 되니 아가씨때 생각도 나고
뭔가 기분 좋아지네요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리프레시되었어요 감사해요~

6개월 뒤 다시 했으면 좋겠어요
아주 힐링되는 시간이었어요

2023년을 향기로운 향슈로 마무리하게되서 즐거웠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힐링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들 성인대비 교육

매우 만족하는 수업이었다

라탄거울만들기 수업해주세요.

꽃꽂이.그림.향수.비누.도마공방 등등등

나만의 향수만들기 너무 좋아요~ 다음에 또해요!

공방.꽃꽂이프로그램만들어주세요

3개월후에 또 만나고 싶어요~~

꽃꽂이

3. 결산

세출		
내용	산출내역	예산
체험비	· 조향체험 : 30,000원×13명	390,000
다과비	· 샌드위치 : 6,500원×13개	84,500
총계		474,500

별첨 1. 교육사진 1부

2. 참여자명단 1부. 끝.

□ 교육사진



이론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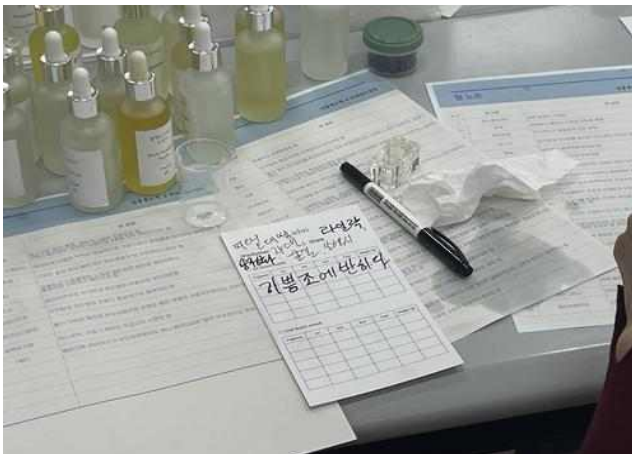
조향작업



조향작업



라벨링



품명짓기



결과물

2023년 열린일터 사업 및 운영지침 교육



팀 명	열린일터
일 시	2023년 1월 12일 (목)
장 소	대면 및 서면교육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2023년 열린일터 연간 사업 일정

- 시무식 : 1월 9일(소그룹 시무식 진행)
- 설명절 행사 : 1월 19일(인천 차이나타운 이용 / 인천공동모금회 지원)
- 등산 : 4월, 5월, 9월
- 여행 : 4월 19일~21일(장소 미정, 장소에 따라 일정 변경 가능)
- 비루고개축제 : 5월 5일
- 여름휴가 : 7월 31일~8월 4일
- 인천시 장애인직업재활의날 행사 참석 : 10월중(날짜 미정)
- 남동송년예술제 : 12월 13일
- 종무식 : 12월 29일

※ 코로나 19 및 시설상황에 따라 이용시간과 프로그램 연간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II. 2023년 일일 시간표

오전	10시 00분 ~ 11시 00분	프로그램 및 작업(근로시간)
	11시 00분 ~ 11시 20분	쉬는시간
	11시 20분 ~ 12시 20분	프로그램 및 작업(근로시간)
오후	12시 20분 ~ 13시 30분	점심시간
	13시 30분 ~ 14시 3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4시 30분 ~ 14시 50분	쉬는 시간
	14시 50분 ~ 15시 5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5시 50분 ~ 16시 00분	쉬는 시간
	16시 00분 ~ 16시 50분	프로그램 및 작업
	16시 50분 ~ 17시 00분	청소 및 정리

III. 2023년 근로자 및 훈련생 명단

근로자	훈련생
강웅혁, 권구원, 김정우, 김재권 민상훈, 방지원, 손정희, 윤준형 이현석, 이형석, 이해민, 정지훈 조국태, 최지윤, 황지선 (15명)	고아연, 김민지, 노동성, 신소영 심명진, 엄혜정, 양현수 양찬영 유정임, 이기홍, 이영욱, 이하늘 장서진, 장아영, 정나래, 최준홍 (16명)

IV. 2022년 주요 프로그램

프로그램명		담당자	횟수	참여자	비고
지역사회 적응훈련	근로자	김원진	연4회	근로자	- 소그룹 프로그램 진행
	훈련생	김은총	연4회	훈련생	
성교육		이보경	연4회	이용인 전체	
인권교육	근로자	금민희	연7회	근로자	
	훈련생		연4회	훈련생	
안전교육		윤성호	연6회	이용인 전체	
환경교육		김원진	연2회	이용인 전체	
운동활동		김은총	주1회	이용인 전체	1) 요가·스트레칭 - 수요일 : 근로자 - 목요일 : 훈련생 - 남동구 체육회 연계 2) G.X 프로그램 - 3월 7일부터 진행 - 화, 목요일 - 비만관리 필요한 이 용인 8명
등산		류수진	연3회	이용인 전체	
여행		윤성호	연1회	이용인 전체	코로나 19 상황에 따 라 변경 가능

V. 근로자 급여 및 훈련수당

1. 근로자 급여

- 1일 2시간 근로(최저임금 지급 / 고용·산재보험)
- 근로자의 날, 통계 및 하계휴가, 개인휴가 5일은 유급
- 등산, 여행 등의 프로그램 참여로 인해 1일 2시간의 근로를 하지 않은 날은 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2. 훈련수당 : 훈련생 1인당 월 150,000원(90% 이하 출근은 일할계산)

3. 복지일자리사업 참여하는 훈련생은 일자리사업 참여 6시간을 1일로 계산하여 훈련수당에서 공제

4. 한국장애인개발원 훈련생(6년까지 가능)

- 월 10만원의 훈련수당을 분기별로 지급
- 80% 이상 출근 시 전액 지급이나 15일 이상의 출근일수가 되지 않는 달은 일할 계산, 80% 미만 출근 시 미지급

VI. 보호고용 운영지침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지침은 열린일터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장애인의 근무와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정된 직장생활을 유지하여 자활기반을 도모하고 궁극적으로 사회통합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명칭)

1. 본 보호작업장은 ‘열린일터’(이하 시설)라 칭한다.
2. 열린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이용인’이라 칭한다.
3. 이용인 중 보호고용 된 자는 ‘근로자’, 작업활동 프로그램생은 ‘훈련생’이라 칭한다.

제3조 (적용 및 범위)

1. 본 지침은 본 시설의 보호고용 근로자에게 적용되며,
2. 보호고용 운영에 관하여 별도 지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4조 (근로자의 정의) 본 지침에서 근로자라 함은 본 규정 제2장에 의거해 보호고용 근로자로 선정되어 근로 계약이 된 자

제 2 장 근로자 선정 및 계약

제5조 (근로자 선정) 근로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근로자 선정은 ‘근로자 선정평가’를 통하여 실시한다.
2. 본 시설의 이용인 중 ‘근로자 선정평가’를 4회 이상 실시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개정2020.1.1]
3. 매 연말 분기별 실시한 ‘근로자 선정평가’의 평균 점수를 기준으로 차기 년도 근로자를 선정한다. 근로자의 최소 인원은 10명으로 한다.[개정 2018.10.1][개정 2022.1.1]

제6조 (근로자 선정평가) ‘근로자 선정평가’는 본 시설을 3개월 이상 이용한 자를 대상으로 하고, 분기별 1회 실시한다.[개정 2020.1.1]

제7조 (근로 계약) 근로자로 선정된 이용인과 시설장은 근로계약서에 서날인하여 1부씩 교환함으로써 근로 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제 3 장 프로그램

제8조 (재활프로그램) 본 시설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재활프로그램을 실시한다.

1. 장애인의 유형, 연령별 특성과 당해 시설에서 수행 중인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재활사업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재활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주 8시간 이상 실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 1) 직업적응훈련 :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훈련, 작업 태도 및 기술훈련 등[개정2021.4.1.]
 - 2) 문제해결훈련 : 의사소통 기술훈련, 문제해결훈련, 대인관계 능력 향상훈련, 위급 혹은 응급상황 대비훈련, 자기옹호 및 주장훈련
 - 3) 직업평가 : 작업표본평가 및 현장 평가
 - 4) 직무기능향상훈련 : 직무분석에 따른 직무변경, 개조, 보조공학 개입에 따른 훈련
 - 5) 지역사회 자원 활용훈련 : 지역사회적응훈련

제9조 (취업)[신설 2020.1.1.]

1. 근로자가 취업을 위해 면접 및 현장훈련을 실시할 경우 출근으로 인정한다.
1. 외부기관과 연계된 지원고용으로 현장훈련에 대한 수당이 지급될 경우 훈련 기간 만큼 급여에서 공제한다.
3. 근로자가 외부 업체에 고용되어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시설과의 근로 계약은 해지되고 종결한다. 단, 취업자가 업체와의 고용을 해지하고, 시설 재이용을 원할 경우 재접수하여 훈련생으로 입소할 수 있으며 잔여 이용 기간을 이용할 수 있다. 잔여 이용 기간이 없을 경우에는 시설을 재이용할 수 없다.[개정 2021.4.1.]

제 4 장 복 무

제10조 (근로자의 책임)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는 직무에 관한 관계법규와 본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시설장의 허가 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이탈하지 못한다.
3. 청결 및 도난, 재해방지를 비롯한 제반 안전 및 보안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고의나 과실로 인해 본 시설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근무일시)

1. 근무일은 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 평일로 한다.
2. 이용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로 하고, 근로시간은 근로자에 따라 1일 2시간 또는 3시간으로 한다.[개정 2015.1.1][개정 2017.1.1.][개정 2021.4.1.] [개정 2022.1.1]
3. 휴게시간은 근로계약에 의한다.[개정 2015.1.1.]

제12조 (지각, 조퇴, 외출, 결근)

1. 지각이라 함은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시간 이후에 출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개정 2021.4.1]
2. 조퇴라 함은 근로자가 계약된 근로시간 이전에 퇴근한 것을 의미한다.
[개정 2015.1.1.][개정 2017.1.1.][개정 2021.4.1]
3. 지각, 조퇴, 외출은 누계 3시간을 결근 1일로 계산한다.
[개정 2015.1.1.][개정2018.1.1.][개정 2021.4.1]
4. 연락 없이 결근, 조퇴할 경우 무단결근, 무단조퇴로 간주한다.
5. 이용 기간 만료로 인한 종결을 앞두고 타 기관 이용을 위한 상담 및 현장 평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는 최대 10일까지 출근으로 인정한다.[신설 2015.1.1.]
[개정 2020.1.1.][개정2021.4.1]

제13조 (정기휴무)

1. 주휴일
2. 법정 공휴일 및 관공서의 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휴일[개정 2014.1.1]
3. 근로자의 날
4. 임시 공휴일
5.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3조의 1 (대체공휴일)[본조신설 2014.1.1]

1. 추석 및 설날의 공휴일이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날 다음의 첫 번째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2. 어린이날이 토요일 또는 다른 공휴일과 겹칠 경우 그 날 다음 날의 비공휴일을 공휴일로 한다.

제14조 (임시휴무) 다음과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임시휴무를 실시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으로 근무의 어려움이 판단 될 경우
2. 시설의 공사 혹은 행사로 인해 근무가 어려울 경우

제15조 (휴가) 연차휴가 계산은 다음에 의한다.[개정 2021.4.1]

1. 근로자가 1년간 80퍼센트 이상 개근하였을 경우에는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준다.
2.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경우 1월 간 개근 시 그다음 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3. 근로자가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며,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초과하지 않는다.
4. 연차 유급휴가는 신청에 의해 1시간 단위로 허가할 수 있다.[신설 2023.1.1]

5. 연차 유급휴가는 열린일터에서 정한 휴가기간을 적극 활용하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로 한다.[개정 2023.1.1]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또한,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그 사용을 촉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열린일터 귀책사유로 인한 연차 유급휴가 소멸로 보지 않는다.[개정 2023.1.1]
7. 1주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인 경우에는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다만, 여름, 겨울 정기 휴가를 포함하여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신설 2023.1.1]

제15조의 1 (유급휴일) 시설의 유급휴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본조신설 2021.4.1]

1. 주휴일
2. 근로자의 날
3. 시설이 정하는 휴일

제15조의 2 (휴가원 및 허가) [본조신설 2021.4.1]

1.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3일 이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시설장은 휴가원의 제출이 있을 때는 업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6조 (특별휴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별휴가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 일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개정 2015.1.1]

1. 결혼 : 본인(5일), 자녀,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1일)[개정 2015.1.1]
2.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5일), 본인 및 배우자의 증조부모·외증조부모·조부모·외조부모(3일),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3일),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1일)[개정 2015.1.1][개정 2018.1.1]
3. 배우자 출산 : 10일 범위 내에서 1회에 한정하여 분할사용 가능하며,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시행 2013.2.2)

[개정 2013.1.1][개정 2014.1.1][개정 2022.1.1]

*** 특별휴가 대상 친족의 범위(공무원 복무관리 예규 기준)**

- 직계존속 :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뿐 아니라 외조부모, 외증조부모 포함 양자, 양녀로 입적된 경우에는 양부모와 친생부모 포함(계부, 계모는 인적으로 직계존속이 아님)
- 본인 및 배우자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백숙 부모뿐 아니라 고모(부), 이모(부), 외숙부(모) 모두 포함)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형제자매뿐 아니라 형수, 제수, 형부, 제랑, 매형, 매제, 처남댁, 동서 모두 포함

제17조 (병가) 근로자는 다음의 경우 연 60일 범위 내에서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1] [개정 2023.1.1.]

1.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2. 질병 또는 감염병(보균자)으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을 때
3. 병가 이외 및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연차휴가 일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기일이 부족할 때에는 시설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4. 감기, 몸살 등 단순 질환은 연가로 사용하며, 1호와 2호의 사유로 병가 사용 시 반드시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함에도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연가 일수에서 공제한다.
5. 근로자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원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 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 (공가) 시설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기간의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개정 2023.1.1.]

1. 공무에 관하여 기관에 소환될 때
2.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에 참가하려 할 때
3. 천재지변, 교통차단 등 기타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
4.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
5. 감염병의 확산으로 국가 또는 지자체로부터 검진을 요청받을 때[신설 2022.1.1.]
6. 장애 재진단을 받을 때

제 5 장 임 금

제19조 (임금 지급 기준 및 방법)

1. 근로자는 월 1회 임금을 지급받는다.[개정 2014.1.1]
2. 임금은 근로 계약에 의해 매월 지급한다.[개정 2015.1.1]
3. 임금은 서류상 절차를 거친 후 근로자 개별 통장으로 입금한다.
4. 근로자가 시설에 납부할 이용료 및 중식비가 미납되었을 경우, 임금에서 우선적으로 공제한다. 단, 본인과 보호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미납 여부와 상관없이 공제할 수 있다.[신설 2014.1.1][개정 2017.1.1]
5. 시설은 매출금 및 법인전입금으로 근로자에게 상여금(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2017.1.1][개정 2018.1.1]

제 6 장 종 결

제20조 (종결) 본 시설은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서비스를 종결할 수 있으며 시설장의 재가로 확정한다.[개정 2021.4.1]

1. 근로자 본인 또는 보호자의 종결 의사가 있을 때[개정 2021.4.1]
2. 60일의 병가 이후에도 출근이 어려울 때[신설 2021.4.1]
3. 강제 종결
 - 1) 신체적, 정신적 문제로 지속적인 치료가 필요하여 정상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개정 2022.1.1.]
 - 2) 근로자의 장애 및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타 이용인에게 심각한 위협이나 지장을 주거나 시설 운영을 어렵게 하는 경우[개정 2022.1.1.]
 - 3) 형사사건으로 금고 이상형의 유죄판결이 확정되었을 때
 - 4) 무단으로 연 5회 이상 결근하였을 때
4. 계약종결
‘근로자 선정평가’결과 근로자로 선정되지 않았거나 지역사회 내 업체로 고용되어 근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개정 2020.1.1.]
5. 종결 사유가 발생하면 종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신설2023.1.1.]

제21조 (재이용)

1. 근로자가 종결한 지 2년이 경과 한 후 시설 재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재접수하여 시설이용 여부를 결정하고, 잔여 이용 기간에 한 해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0.1.1.]
2. 강제 종결 이후 재이용을 원할 경우에는 강제 종결 사유에 대한 사후조치 및 시설이용이 가능하다는 전문의 소견서를 확인한 후 이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이용할 수 있다.[신설 2023.1.1.]

제 7 장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제22조 (서비스 개시, 종결 통보) 서비스 담당자는 근로자의 개시, 종결상황을 최소 2주 내에 근로자 또는 보호자에게 통보한다.

제 8 장 손해배상

제23조 (손해배상) 서비스 이용과정 중 발생하는 기타 손해배상 등의 처리는 근로자 및 보호자가 별도 작성한 서약서의 내용에 준하여 처리한다.

제 9 장 부모회의

제24조 (부모회의)[신설 2013.1.1]

1. 보호고용 근로자의 보호자는 부모회의에 참여하여야 한다.
2. 전항을 수행하지 않을 경우 부모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에 대해 이의를 청구할 수 없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본 지침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개정규정 시행일) 개정된 지침은 시설장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2023 전문자료집 - 부모교육

등록번호 2024-6호

- 발행일 : 2024년 2월
- 발행인 : 손 동 훈
- 편집인 : 장 선 영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만수동)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